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김송이(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유경아(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위촉연구원)





## 발 간 사

서울시는 초등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마을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 초등돌봄 기관의 정체성과 함께 놀면서 배우는 공간으로 아동에게 놀이와 쉼을 보장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최우선의 원칙’과 ‘지역사회수요기반 원칙’이라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분석 결과, 학습지원에 대한 센터 안팎의 요구 증가, 학교와의 협력 미흡 등의 일부 한계는 있었지만 아동 주도, 놀이와 쉼 중심 운영, 돌봄공백 해소에 대한 이용아동과 양육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양한 연령의 친구를 만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것에 대한 아동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또래 관계와 놀이가 있는, 소규모 마을 돌봄’으로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특성을 공고히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놀이 중심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기를 대비하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놀면서 배우는’ 지역 돌봄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초등돌봄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FGI조사 및 심층면접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이야기해주신 우리동네키움센터 센터장, 이용아동과 부모님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구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0년 12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백 미 순



# Contents

## I 서론 \_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 2. 연구내용 ..... 7
- 3. 연구방법 ..... 8

## II 초등돌봄 관련 이론적·정책적 쟁점 \_ 11

- 1.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13
- 2.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에 대한 이론적 논의 ..... 23

## III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실태 분석 \_ 25

- 1. 조사개요 ..... 29
- 2. 아동최우선의 원칙 실현 실태 ..... 46
- 3. 지역사회수요기반의 원칙 실현 실태 ..... 85
- 4. 종사자 역량에 따른 센터 운영 차이 실태 ..... 94

**IV**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 \_ 99

- 1. 정책제언 기본 방향 ..... 103
- 2. 놀이 중심 운영 강화: 관계가 있는 돌봄 실현 ..... 105
- 3.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사회 초등 돌봄체계 구축 강화 ..... 115

참고문헌 \_ 118

Abstract \_ 119

## Table Contents

### 표 목차

표 II-1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현황(20.10.31.기준)	15
표 II-2	우리동네키움센터 면적 분포 현황(20.10.31.기준)	17
표 II-3	우리동네키움센터 평균 면적(20.10.31.기준)	17
표 II-4	우리동네키움센터(일반형) 자치구별 평균 면적(20.10.31.기준)	18
표 II-5	우리동네키움센터 정원 분포 현황(20.10.31.기준)	19
표 II-6	우리동네키움센터 평균 인원(20.10.31.기준)	19
표 II-7	우리동네키움센터 아동1인당 면적 분포(20.10.31.기준)	20
표 II-8	우리동네키움센터 아동1인당 면적(20.10.31.기준)	21
표 II-9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방법 현황(20.10.31.기준)	21
표 III-1	FGI 및 1:1 심층면접 조사 개요	31
표 III-2	연구참여자 특성(1): 키움센터 센터장	36
표 III-3	연구참여자 특성(2): 양육자	42
표 III-4	연구참여자 특성(3): 이용아동	45

## 그림 목차

■ 그림 I-1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과 본 연구에서의 재분류 .....	4
■ 그림 II-1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 아동최우선 원칙(5C) .....	24
■ 그림 IV-1 ■ 놀이 중심 운영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선 방향 .....	106



## 연구요약

### □ 연구배경

- 중앙정부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논의,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체계 구축 계획
  -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 2017년 7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초등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촉발됨
  -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온종일돌봄 계획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임. 2018년 서울시는 온마을돌봄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가 지역사회 내 초등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확충하는 것임
  - 2021년까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총 400개소 확충할 계획에 있음. 20.10.31일 기준 197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총 97개소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원칙
  -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사회 내 공적 초등돌봄 인프라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또 다른 명칭임. 서울시 돌봄 수요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원칙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아동최우선의 원칙: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공간', '놀이'와 '쉼'을 토대로 한 '서울형 5C 프로젝트'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능동적 참여와 주도적인 배움의 과정이 발현하는 프로젝트 기반 배움(Project-Based-Learning) 지향
  - 지역사회 수요 기반 원칙: 지역사회의 돌봄 욕구, 돌봄인프라·서비스 현황,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간 연계(공적 자원+마을 자원) 활성화
  -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표방하는 운영원칙이 잘 구현되어야 함.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 때문에 운영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아동최우선의 원칙, 아동 중심, 놀이와 쉽 중심 운영에 대한 양육자 인식 및 종사자 인식·운영 역량 미흡
  - 아동최우선의 원칙 특히, 아동 중심, 놀이와 쉽 중심 운영에 대한 양육자 인식이 미흡하고, 종사자 간에도 내용 이해와 운영 역량의 격차가 큼
  - 지식전달 위주의 학습 지양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의 가장 주된 특징임. 그러나 학습지원을 요구하는 부모들이 있으며, 일부 센터에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맥락 하에 학습지원을 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개학 연기와 함께 키움센터에서 돌봄과 온라인 수업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화 되면서, 학습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이용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센터 간 프로그램 운영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음
- 지역사회수요 기반의 원칙 실현을 위한 체계 미흡
  -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며,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센터의 상황에 따라 센터 간 지역사회 연계 현황의 차이가 매우 큼
  -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간 연계, 지역사회 돌봄 욕구에 대한 촘촘한 대응을 위해서는 학교돌봄과의 유기적 연계가 매우 중요함. 그러나 학교돌봄과의 연계는 미흡한 상황임

#### □ 연구목적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 구현 실태 분석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현황 분석
  -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한 이용자(양육자, 이용아동)와 종사자 인식 분석
-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원칙이 내실 있게 구현될 수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개선 방안 및 운영원칙에 대한 이용자와 종사자 인식 제고 방안 모색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초등아동 돌봄 모델 및 아동주도적 활동의 새로운 모델 제시와 확산에 기여

#### □ 연구내용

-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 정책현황 분석
  - 방과후 정책 추진 경과와 마을돌봄 확대의 의미
  - 서울시 온마을돌봄체계 구축 계획,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현황 분석
  -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체계 분석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 분석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 주요 내용 정리
  - 아동의 놀이와 여가의 중요성,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의 중요성 논의, 이에 따른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한 합의 분석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실태 분석
  - 아동최우선의 원칙 실현 실태 분석
  - 지역사회수요기반 원칙 실현 실태 분석
- 정책제언

#### □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선행연구 및 정책현황 분석
  -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 각종 간담회 자료 및 포럼, 토론회 자료 분석
- FGI조사 및 1:1 심층면접 조사
  - 센터장 9명, 양육자 10명, 이용아동 9명: 지역분포, 가구특성, 아동연령 고려

**<FGI 및 1:1 심층면접 개요>**

구분	연구참여자	일 자	장 소	소요시간
1	센터장 A, 센터장 B, 센터장 C	2020년 11월 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시간
2	양육자 A, 양육자 B, 양육자 C	2020년 11월 10일	참여자 거주지 인근 카페	2시간
3	이용아동 A, 이용아동 B, 이용아동 C			1시간
4	센터장 D, 센터장 E, 센터장 F	2020년 11월 1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시간 30분
5	센터장 G, 센터장 H, 센터장 I	2020년 11월 12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시간 30분
6	양육자 D, 양육자 E	2020년 11월 16일	참여자 직장 인근 카페	2시간
7	양육자 F, 양육자 G	2020년 11월 16일	양육자 G 주택	2시간
8	양육자 H	2020년 11월 18일	참여자 직장 인근 카페	2시간
9	이용아동 D, 이용아동 E, 이용아동 F	2020년 11월 19일	○○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2시간
10	양육자 I	2020년 12월 1일	온라인(화상) 인터뷰	1시간
11	양육자 J			1시간
12	이용아동 G, 이용아동 H, 이용아동 I	2020년 12월 11일	온라인(화상) 인터뷰	1시간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실태 분석**

○ 아동최우선의 원칙 실현 실태

- 키움센터에 대한 아동과 양육자 인식: 아동은 키움센터를 친구들을 만나서 놀 수 있는 곳,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며 매우 만족하고 있음. 양육자들은 학교돌봄과 다르게 관계가 있는 곳, 다양한 연령이 어울릴 수 있는 곳, 아이가 좋아하는 곳으로 인식하며, 이러한 점들이 키움센터 이

용에 대해 만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학습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양육자들도 일부 있었음

- 이러한 이용아동과 양육자들의 인식을 고려한다면 소규모, 관계가 있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있는, 놀이가 있는 곳으로 키움센터의 특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 중심’, 아동 자율성 보장 실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아동들이 결정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 초기 키움센터의 셋팅, 활동 자체의 기획 등을 아동 주도로 운영하는 센터도 일부 있음. 그러나 센터장 및 돌봄교사의 인식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맥락이 매우 다르게 나타남. 일부 키움센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 선택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정’으로서의 참여권 보장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 아동 중심 운영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의 개선이 필요함
- ‘놀이와 쉼’ 운영 실태: 연구 참여 아동들은 ‘바깥놀이 활동’을 가장 좋아함. 아동 놀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실외 놀이활동 확대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키움센터에서도 실외 놀이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한편, 학습이 아닌 놀이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중심으로 키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동들은 이에 대해 놀이가 아닌 ‘또 다른 학습’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남. 강사가 기획하고 주도하기 때문에 이는 진정한 의미의 놀이는 아님. 시간을 정하면 아동의 자율성은 생기기 어려움
- 키움센터의 학습지원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학습지원을 하고 있는 키움센터는 양육자들이 학습지원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함.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양육자들의 대부분은 키움센터 역할로 학습지원을 기대하지는 않음. 학습지원을 하고 있는 키움센터 센터장들은 ‘소량의 적절분량으로 아이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학습을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아동들이 키움센터에서 학습지원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원하는지, 놀이와 쉼 중심 운영이라는 초기의 운영 목표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함

○ 지역사회수요기반의 원칙 실현 실태

- 지역마다, 동일 지역 내에서도 센터마다 지역 연계 현황 차이가 큼. 학교와의 거리, 타 돌봄기관과의 거리도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침. 센터장의 마을자원 발굴·연계 역량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역 내 키움센터의 역할과 위상 강화, 인지도 제고 또한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개별 키움센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중앙정부 및 서울시 등 정부 차원의 체계 구축 노력이 더욱 필요함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차원의 학교-자치구 협력 강화 체계를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융합형 키움센터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

○ 기본방향: '돌봄관계'가 있는 '소규모' '마을' 돌봄으로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정체성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양질의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체계 내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학교를 비롯한 지역 내 타 초등 돌봄기관 간 역할 구분과 연계를 활성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타 초등 돌봄기관과 구별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필요함
- 연구결과,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고유한 특성은 돌봄관계가 있으며, 소규모이고, 마을(우리동네)에서 운영하는 마을 대 돌봄 기관이라는 점이 드러남
- 따라서 키움센터의 돌봄관계가 있는, 소규모, 마을 돌봄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운영 내실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키움센터 고유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표방하는 키움센터 운영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함

○ 놀이 중심 운영 강화: 관계가 있는 돌봄 실현

- 놀이는 아동의 자발성, 창의성, 즐거움 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놀이 중심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아동 주도, 아동 중심의 아동 창의성과 즐거움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키움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함
- 놀이 중심 운영 강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충분한 놀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성인(양육자, 종사자, 프로그램 강사 등)주도의 프로그램·활동과 교과학습 지도를 최소화함. 가령, 중앙정부 및 서울시 차원에서 교과학습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 지도는 학교의 역할로 명확히하고 학교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현 초등 돌봄체계의 역할 분담에 따라 집중적인 교과학습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로 연계하여 돌봄수요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종사자, 양육자, 자치구 담당자의 놀이, 쉽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함. 종사자의 경력, 역량에 따라 각자의 방식대로 놀이를 이해하고 놀이 활동 운영을 해오고 있었음. 이에 종사자 채용 시 운영원칙(아동중심, 놀이와 쉽 중심) 인식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채용 이후 종사자의 놀이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함. 놀이 중심 운영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강화하되, 컨설팅 대상 개소수를 확대하기 보다는 컨설팅 내용, 체계를 내실 있게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함. 양육자의 놀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키움센터 이용 초기 상담시 운영원칙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고, 키움센터 부모모임을 통한 양육자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놀이 공간확보 및 놀이 중심 환경 구성도 필요함. 키움센터 아동 1인당 면적 최소기준 확대하여 권장기준인 1인당 7㎡을 최소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공간 확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함. 인근 시설 및 자연공간 활용 강화,

거점형 키움센터 확충을 통한 거점형 키움센터의 공간 연계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음

○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사회 초등 돌봄체계 구축 강화

-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의 다양한 돌봄 자원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해 키움센터가 지역사회 내 중심적인 초등돌봄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돌봄서비스 및 활동을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함. 융합형 키움센터의 자원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키움센터 센터장의 자원 발굴 및 연계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지역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함



# I

##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7년 7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초등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촉발되었다. 이후 시범사업과 범부처 논의를 거쳐 2018년 4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확대, 지자체-교육청-학교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을돌봄 확대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에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 9).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온종일돌봄’계획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018년 5월 ‘틈새없는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전면확대’공약을 발표하고, 시범사업 시행과 행정 및 법령체계 개편 등을 거쳐 마을 중심의 공적 아동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2022년까지 총 400개소 확충하는 것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사회 내 공적 초등돌봄 인프라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또 다른 명칭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센터명칭이 있는 경우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20: 9), 서울시는 서울시의 돌봄 수요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좀 더 촘촘히 구축하고자 서울시만의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별도의 운영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세부적인 운영방향과 목표를 정리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 또한 만들었다. 따라서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양질의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원칙이 잘 구현되어야 한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놀면서 배우는 공간으로 아동들에게 놀이와 학습을 보장함을 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 두 가지를 수립하였다. 첫째, ‘아동최우선의 원칙’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원칙으로 이는 아래 <그림 1-1>과 같이 하위 5가지 원칙(서울형 5C 프로젝트)으로 다시 나뉜다. 아동주도로 진행되며, 아동의 창의성, 자신감을 향상시켜주고, 아동들이 협력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기반 배움(Project-Based-Learning)을 지향함을 의미한다(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0: 26-27).



그림 1-1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과 본 연구에서의 재분류

둘째, ‘지역사회수요기반 원칙’이다. 초등 연령 아동 및 부모의 돌봄 수요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공적 자원과 마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연계함을

의미한다(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0: 26-27). 지역사회의 돌봄 수요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되, 마을 내 다양한 돌봄자원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위 ‘서울형 5C 프로젝트’의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와도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표방하는 위와 같은 운영원칙이 잘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아동최우선의 원칙’ 중 아동 중심, 놀이와 쉼 중심의 운영원칙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이 미흡하고, 종사자 간에도 내용 이해와 운영 역량이 상이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간 운영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가령, 지식전달 위주의 학습 지양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의 가장 주된 특징이다. 그러나 학습지원을 요구하는 양육자들이 있으며, 일부 센터에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맥락 하에 학습지 지도 등 학습지원을 하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장기화와 함께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온라인 수업 지원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학습지원에 대한 양육자의 요구와 기대는 더욱 증가하였다. 일부 센터장과 돌봄교사 또한 학습지원을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역할로 인식,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양육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센터 간 프로그램 운영의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진행, 공적 자원과 마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하는 것에 있어서도 지역 간, 센터 간 차이가 큰 상황이다.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 간 연계, 지역사회 돌봄 욕구에 대한 촘촘한 대응을 위해서는 학교와의 유기적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와의 연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학교 외 지역 내 타 돌봄기관과 우리동네키움센터 간 연계도 아직은 미흡하다. 일부 센터에서만 지역자원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 19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간 돌봄 자원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 두 가지가 얼마나 잘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현황,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에 대한 종사자와 이용자(아동과 양육자) 인식 정도를

살펴볼 것이다. 운영원칙은 <그림 1-1>과 같이 세부 내용에 따라 아동최우선의 원칙은 ‘아동 주도로, 놀이와 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로, 지역사회수요기반 원칙은 아동최우선의 원칙의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와 통합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계하고 있는가’로 재분류하고 구체화하였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서울시 및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초등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원칙이 내실 있게 구현될 수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개선 방안 및 운영원칙에 대한 이용자와 종사자 인식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원칙이 얼마나 잘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원칙이 반영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인식 개선 및 인지도 제고, 키움센터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과 관련한 이론적, 정책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초등돌봄 정책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마을돌봄, 놀이와 쉽 중심의 초등돌봄 정책의 확산의 의미를 정리하였다. 관련 정책현황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성과와 한계를 논하였다. 본 연구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원칙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동최우선의 원칙과 지역사회수요기반의 원칙에 기반하여 아동 놀이,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쟁점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한 이용아동, 양육자 인식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에서 표방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원칙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IV장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정책제언에는 이용자 인식 개선 방안,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개선 방안, 지역사회 내 우리동네키움센터 인지도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

### 3. 연구방법

#### 1) 정책자료 및 문헌 검토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운영원칙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기 위해 정책자료 및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중앙정부 온종일돌봄,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 관련 정부 자료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우리동네키움센터 세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협조를 통해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III장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실태 분석을 위해 간담회 및 토론회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현황과 종사자 의견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에서 진행한 간담회 녹취록과 서울시에서 진행한 「포스트코로나 초등돌봄 정책 방향 포럼」 1~3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의 간담회는 ‘온마을돌봄 전달체계 활성화’를 주제로 2020년 6월~7월 2차례 진행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2명과 권역별로 융합형, 일반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센터장 4명이 참여하였다. 간담회에 참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고 분석하였다.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초등돌봄 정책 방향 포럼은 2020년 8월~12월까지 총 3회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시기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지역 돌봄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포스트코로나 시기의 서울시 초등돌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1차 포럼에서는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한 그룹 토의의 촉진자로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2차 포럼에서는 1차 포럼 그룹 토의 내용의 발표자로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3차 포럼은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포럼 동영상 자료를 보고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 2) FGI조사 및 1:1 심층면접 조사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이용 현황,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FGI조사 및 개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FGI조사 및 개별 심층면접은 키움센터 이용아동의 양육자 10명, 키움센터 이용아동 9명, 키움센터 센터장 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키움센터 이용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는 이용아동 및 가구 특성, 아동 하루 일과(돌봄) 현황, 키움센터 및 기타 돌봄자원 이용 현황, 서울형 5C프로젝트, PBL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인식, 공적 초등돌봄서비스에 대한 기대, 키움센터 이용 요인, 영역별 만족도, 불만족 요인,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키움센터 센터장을 대상으로는 센터별 이용아동 특성, 이용현황, 운영시간, 종사자 특성, 프로그램, 서울형 5C프로젝트, PBL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인식, 운영 어려움,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FGI조사 및 1:1 심층면접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III장에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면접조사 외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일반 현황 및 실제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현장방문 조사도 병행하였다. 현장방문 조사는 일반형 키움센터 3개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구 진행 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현장방문은 1개소만 진행할 수 있었다. 키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와의 거리 센터 주변 환경, 돌봄교사들이 아이들과 지내는 모습, 센터 내부 공간 구성 등을 살펴보았다.

## 3) 전문가 자문회의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연구 초기 연구 설계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연구 중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 후반 정책제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위해 진행하였다.



# II

## 초등돌봄 관련 이론적·정책적 쟁점

1.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 정책 현황 분석
2.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에 대한 이론적 논의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I

## 초등돌봄 관련 이론적·정책적 쟁점

### 1.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1) 중앙정부 온종일돌봄, 서울시 온마을돌봄 정책 추진의 의미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기 전까지 초등돌봄정책은 주로 학교 돌봄을 중심으로 확대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그 간의 마을돌봄 확대 논의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거의 전부였다. 그러나 2018년 4월에 발표된 중앙정부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과 연이어 2018년 5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 계획」은 마을돌봄을 확대하고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초등돌봄 정책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중앙정부의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계획과 서울시 온마을돌봄체계 구축 계획의 주요 내용과 그 함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돌봄의 대상이 초등 저학년 위주에서 초등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다. 더불어 마을돌봄은 특히,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던 것이 마을돌봄 기관이 확대되면서 전계층 아동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초등돌봄 또한 보편서비스로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동시에 초등 전 연령, 전계층 대상으로 초등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초등돌봄 서비스의 내용 또한 변화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둘째, 마을돌봄이 확대되면서 학교 중심으로 초등돌봄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에서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 다양한 마을돌봄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논의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학교 단위 중심에서 지역 단위로 초등돌봄서비스 공급체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의 다함께돌봄사업,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사업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향후에는 지역 내 돌봄 수요와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초등돌봄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셋째, 마을돌봄의 기능으로 상시 돌봄뿐만 아니라 일시 돌봄의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놀이와 쉼 중심의 운영을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표방한 것 또한 중요한 정책 방향 변화 중 하나이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마을돌봄의 서비스 제공 대상이 확대된 것과도 연관이 깊다.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체계에서는 상시 돌봄에 초점을 두고, 놀이와 쉼 중심의 운영보다는 학습 지원이 포함된 밀도 높은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전계층의 초등 전연령을 대상으로 마을돌봄의 서비스 제공 대상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연령이 어울릴 수 있는, 일시 돌봄 지원도 가능하도록 놀이와 쉼 중심 운영을 표방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초등돌봄 서비스의 운영 현황 분석 특히, 마을단위 초등돌봄 서비스 현황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 방향 전환의 의미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 2)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 (1) 설치·운영 일반 현황

서울시는 2018년 5월 ‘틈새없는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공약 발표와 함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2018년 6월, 노원, 도봉, 마포, 성북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31일 기준, 25개 전 자치구에 197개소의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설치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형은 173개소, 융합형은 21개소, 거점형은 3개소가 확충되었다<sup>1)</sup>.

1) 서울시는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온마을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확충하고 있다. ‘일반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근

그 중 22개 자치구(강북, 금천, 관악 제외) 98개소의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1/4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로,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온종일돌봄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래 <표 II-1>의 자치구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운영 현황에서 자치구별 편차가 큰 것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 노원구는 27개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고, 그 중 24개소가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다. 노원, 구로, 송파 순으로 키움센터 설치·운영 비율이 높다. 반면 관악과 중랑은 설치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2개소에 불과하다. 강북, 금천, 관악은 2020년 10월 31일 기준 운영 중인 키움센터가 없다. 지역별 키움센터 설치 편차가 커, 추후 확충 시에는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표 II-1 |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현황(20.10.31.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설치 현황					운영 현황				
	(%)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	(%)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		
서울시	197 (100.0)	173	21	3	98 (100.0)	94	3	1		
종로	6 3.1	4	1	1	1 1.0	1				
중구	7 3.6	7			5 5.1	5				
용산	8 4.1	8			6 6.1	6				
성동	11 5.6	11			10 10.2	10				
광진 <sup>1)</sup>	11 5.6	9	2		2 2.0	2				
동대문	3 1.5	3			2 2.0	2				
중랑	2 1.0	2			1 1.0	1				
성북 <sup>1)</sup>	11 5.6	10	1		1 1.0	1				

거리에서 상시·일시·긴급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다.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권역 내 돌봄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마을 돌봄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가장 규모가 큰 시설로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특화된 지역 대표 특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형과 융합형 키움센터의 운영을 보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표 II-1 계속

구분	설치 현황					운영 현황				
	(%)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	(%)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		
강북	3	1.5	1	2		0.0				
도봉	6	3.1	5	1		3	3.1	3		
노원	27	13.7	24	2	1	24	24.5	21	2	
은평	9	4.6	8	1		4	4.1	4		
서대문	4	2.0	3	1		1	1.0	1		
마포	6	3.1	5	1		2	2.0	2		
양천	3	1.5	2	1		1	1.0	1		
강서	4	2.0	4			2	2.0	2		
구로 <sup>1)</sup>	18	9.1	16	2		9	9.8	8	1	
금천		1.5	3				0.0			
영등포	9	4.6	9			6	6.1	6		
동작 <sup>1)</sup>	14	7.1	11	2	1	3	3.1	3		
관악	2	1.0	2				0.0			
서초	3	1.5	3			3	3.1	3		
강남	5	2.5	5			4	4.1	4		
송파 <sup>1)</sup>	16	8.1	14	2		7	7.1	7		
강동	6	3.1	4	2		1	1.0	1		

주: 음영으로 표기된 광진, 성북, 구로, 동작, 송파는 집중지원구에 해당함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 (2) 면적 및 정원 현황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통해 아동들에게 놀이와 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놀이와 쉼에 적합한 충분한 놀이공간과 쉼 공간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키움센터의 면적과 정원 현황, 아동 1인당 면적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각 유형별로 최소 면적기준을 제시하였다. 일반형 키움센터는 걸어서 10분 거리 내에 있는 소규모 센터로 66㎡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한다. 융합형 키움센터는 210㎡ 이상이어야 설치할 수 있다. 거점형 키움센터는



1,000㎡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하며, 아동 7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 운영 중인 97개소 키움센터의 면적을 분석한 결과, 최소 면적 기준인 66㎡는 7개소로 7.2%에 해당한다. 67~83㎡인 키움센터가 29개소(29.9%)로 가장 많다. 66~99㎡(약 20~30평)가 56.7%로 키움센터가 주로 소규모로 설치되고 있다.

【 표 II-2 】 우리동네키움센터 면적 분포 현황(20.10.31.기준)

(단위: 개소, %)

	66㎡	67~83㎡	84~99㎡	100~132㎡	133㎡이상	계
개소	7	29	19	19	23	97
비율	7.2	29.9	19.6	19.6	23.7	100.0

주: 1) 20.10.31. 기준 제1호 거점형키움센터는 시범운영 중으로 제외하고, 운영 중인 융합형·일반형 9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면적은 평수를 기준으로 범주를 나눴음: 66㎡(20평), 67~83㎡(약 21~25평), 84~99㎡(약 26~30평), 100~132㎡(약 31~40평), 133㎡이상(약 41평 이상)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97개소 키움센터의 평균 면적은 114.3㎡이며, 융합형을 제외한 일반형 94개소의 평균 면적은 108.9㎡이다.

【 표 II-3 】 우리동네키움센터 평균 면적(20.10.31.기준)

(단위: ㎡)

평균	전체(97개소)		일반형(94개소)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114.3	66	318	108.9	66	316

주: 1) 전체는 20.10.31.기준 제1호 거점형키움센터는 시범운영 중으로 제외하고, 운영 중인 9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일반형은 20.10.31.기준 운영 중인 융합형 3개소를 제외하고, 일반형 94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다음으로 자치구별 우리동네키움센터 규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치구별 일반형 우리동네키움센터 평균 면적을 분석하였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없는 강북, 금천, 관악을 제외하고 22개 자치구 94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동대문(평균 207㎡), 중구(평균 185㎡), 강서(172.0㎡), 강남(171.5㎡)가 키움센터 평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과 강서는 운영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가 2개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중구와 강남은 운영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각각 5개소, 4개소로 상대적으로 키움센터를 크게 짓는다는 것이 지역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일반형 우리동네키움센터 1개소당 평균 면적이 가장 작은 자치구는 노원구로 평균 79.8㎡이다. 다음으로 성동구가 85.5㎡로 두 번째로 평균 면적이 작다. 노원구와 성동구는 운영 중인 일반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각각 21개소, 10개소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가장 많은 두 지역이다. 키움센터를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추가 유희 공간 확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표 II-4 】 우리동네키움센터(일반형) 자치구별 평균 면적(20.10.31.기준)

(단위: 개소, %)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개소	1	5	6	10	2	2	1	1	3	21	4
평균	74	185	107.3	85.5	103	207	73	95	115	79.8	89.8
최소		105	73	66	75	186			101	66	67
최대		290	165	118	131	228			140	132	117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개소	1	2	1	2	8	6	3	3	4	7	1
평균	85	96	141	172	109.3	97.3	153.7	121	171.5	99.9	138
최소		90		121	68	66	83	97	94	81	
최대		102		223	181	132	196	164	316	165	

주: 1) 20.10.31.기준 운영 중인 융합형 3개소를 제외하고, 일반형 94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20.10.31.기준 운영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없는 강북, 금천, 관악구는 표에서 제외함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정원 분포는 정원 자료가 없는 2개소를 제외하고 95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20명 정원이 곳이 46개소로 48.4%, 절반가까이 차지하며, 그 뒤를 16~20명이 20개소(21.1%)로 바로 잇고 있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 운영 중인 키움센터의 88.4%가 정원 30명 이하로 키움센터는 ‘소규모’ 초등방과후 돌봄기관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 표 II-5 】 우리동네키움센터 정원 분포 현황(20.10.31.기준)

(단위: 개소, %)

	15명 이하	20명	21~25명	26~30명	31명 이상	계
개소	3	46	21	14	11	95
비율	3.2	48.4	22.1	14.7	11.6	100.0

주: 20.10.31. 기준 시범운영 중인 제1호 거점형키움센터, 개소는 했으나 운영 준비 중인 센터 2개소를 제외하고, 정원 자료가 있는 95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융합형을 포함한 95개소의 평균 정원은 24.8명이며, 융합형을 제외한 일반형 92개소 평균 정원은 24.4명이다. 융합형과 일반형의 정원규모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앞의 면적 분석에 이어, 키움센터가 소규모를 주로 확충·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I-6 】 우리동네키움센터 평균 인원(20.10.31.기준)

(단위: 명)

전체(95개소)			일반형(92개소)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24.8	15	80	24.4	15	80

주: 1) 20.10.31. 기준 시범운영 중인 제1호 거점형키움센터, 개소는 했으나 운영 준비 중인 센터 2개소를 제외하고, 정원 자료가 있는 95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2) 일반형은 정원 자료가 있는 95개소 중 융합형 3개소를 제외하고, 일반형 92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놀이와 쉽 중심의 운영을 위해서는 아동 1인당 면적이 매우 중요하다. 놀이와 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면적이 충분해야 한다. 아동 1인당 면적은 면적과 정원 자료가 모두 있는 95개소를 대상으로 면적을 정원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 1인당 평균 면적인 4㎡이하 인 곳이 41개소(44.2%)로 가장 많았고, 4.01~5㎡인 곳이 22개소(23.2%)로 두 번째로 많았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기준에 따르면, 돌봄활동 전용면적 기준이 아동 1인당 3.3㎡ 이상이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0: 18; 서울특별시, 2020: 33). 그러나 아동 1인당 면적이 3.3㎡에 못미치는 키움센터도 7개소가 있었다. 아동 1인당 면적을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 자료의 면적을 정원으로 나눠서 단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지침 상의 기준에 못미치는 곳은 세부 분석이 필요하다.

【 표 II -7】 우리동네키움센터 아동1인당 면적 분포(20.10.31.기준)

(단위: 개소, %)

	4㎡이하	4.01-5㎡	5.01-6㎡	6.01-7㎡	7.01㎡이상	계
개소	42	22	14	8	9	95
비율	44.2	23.2	14.7	8.4	9.5	100.0

주: 면적을 정원으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융합형을 포함한 키움센터 95개소의 아동 1인당 평균 면적은 4.6㎡이며, 융합형을 제외한 92개소의 평균 면적은 4.5㎡이다. 평균적으로 최소 기준은 만족하지만, 서울시의 권장면적 기준인 아동 1인당 7㎡이상(서울특별시, 2020: 33)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권장면적 기준 아동 1인당 7㎡이상인 곳은 10개소(10.5%)이다. 놀이와 쉽 중심을 위해서는 키움센터 면적을 최소 기준에 맞추기 보다는 권장 면적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여 키움센터를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 표 II-8 】 우리동네키움센터 아동1인당 면적(20.10.31.기준)

(단위: m<sup>2</sup>)

전체(95개소)			일반형(92개소)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4.6	2.6	9.3	4.5	2.6	9.3

주: 면적을 정원으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3) 운영방식

운영방법은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 중인 곳이 54개소(55.7%), 위탁으로 운영되는 곳이 43개소(44.3%)로 자치구 직영인 곳의 비율이 다소 높다.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방법은 자치구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활발히 확충하는 자치구들이 대부분 자치구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직영 비율이 높다. 종로, 중구, 용산, 성동, 성북, 도봉, 영등포가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노원구도 1호점 한 개소를 제외하고는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단 노원구는 자치구 출자·출연기관인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자치구 직영 구조도 구마다 상이하다.

【 표 II-9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방법 현황(20.10.31.기준)

(단위: 개소, 비율)

	자치구 직영	위탁공모	계
개소	54	43	97
비율	55.7	44.3	100.0
해당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성북, 동보, 영등포, 노원(1호점 제외)	광진, 동대문, 중랑,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후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지속 확충됨에 따라 운영방법 현황은 달라질 것이다. 구마다 자치구 직영에서 위탁으로, 위탁에서 자치구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가령, 구로구는 현재 9호점까지는 위탁 운영 방식이다, 향후 개소하는 곳은 자치구 직영으로 자치구 출자·출연기관인 구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 중인 성북, 성동 등은 위탁 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직영 2년을 앞두고 있는 키움센터들을 중심으로 위탁 운영체를 모집 중에 있다.

## 2.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 내용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원칙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첫째, 아동최우선의 원칙이다. 이는 아래 <그림 II-1>과 같이 서울형 5C 프로젝트로 설명된다. 서울형 5C 프로젝트는 첫째, 아동주도(Child-directed)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돌봄을 받는 아동이 아닌 스스로 돌보는 아동이 될 수 있도록 아동의 자율성에 근거한 돌봄을 제공하며, 아동에게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창의성(Creativity)을 향상시켜주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키움센터과 창작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작업실(Makers space)’이 되도록 아동들이 센터 내 재료와 도구를 활용해 다양한 제작과 표현 활동을 하도록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자신감(Confidence)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돌봄교사는 아동에게 정서적·동기적 측면의 배려와 관심을 가지되 직접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은 지양하며, 아동이 프로젝트 과정에서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경험하도록 격려하는 태도로 동기부여에 힘을 실어주도록 한다. 넷째, 협력(Collaboration)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센터 내에서 또래들과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문제해결 및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일상생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들에게 마을공간에서 어울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째, 지역사회(Community)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기존의 ‘한정된 공간에서 안정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와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밀접하게 활용하여 프로젝트 기반 배움 활동(Project-Based-Learning)을 위한 콘텐츠를 풍부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키움센터에서 아동최우선의 원칙이 잘 구현된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세부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키움센터에서는 아동 주도로 진행하며, 창의성, 자신감, 협력을 향상시켜주는,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기반 배움 활동을 잘 수행해야 한다. 이후 분석에서는 키움센터의 운영,

다양한 활동 진행 과정에서 위 다섯가지 세부내용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아동최우선의 원칙 실현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자료: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0: 26)

### Ⅱ-1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 아동최우선 원칙(5C)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두 번째 운영원칙은 지역사회수요기반의 원칙이다. 초등 연령 아동 및 부모의 돌봄 수요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공적 자원과 마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동·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단위의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 다시 말해, 온마을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과 함께 서울시는 마을단위의 공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서울시만의 새로운 모델도 만들었다. 융합형 키움센터는 돌봄수요와 공급 조정을 통한 마을 권역내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마을 권역 전달체계 구축, 마을 돌봄서비스 제공 및 마을돌봄자원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0: 102). 지역의 돌봄수요에 따라 마을의 돌봄자원을 발굴·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지역사회수요 기반의 원칙 이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온마을돌봄협의체 운영 계획 또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것의 일환이다. 이 외에도 우리동네키움포털을 통해 각 자치구별 마을돌봄 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민 및 각 키움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키움센터 단위에서, 또는 자치구 및 지역 단위에서 학교를 포함하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기관 및 돌봄 자원 연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온마을돌봄협의체 등의 마을 단위의 돌봄기관 간 연계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수요 기반의 원칙 실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아동의 놀이 중요성과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한 함의

앞에서 논의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원칙과 함께 서울시는 놀이와 쉼의 공간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아동최우선의 원칙의 서울형 5C 프로젝트나 PBL활동 중심의 운영 등은 놀이와 쉼 중심 운영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아동의 놀이와 여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하나의 방안이다.

현재 아동의 놀이, 여가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정과제(50번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에서도 초등학교의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문예체 교육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초등학교의 놀이 시간 확대를 위해 2018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하교시간을 3시로 확대하고, 학년별로 1~2시간 연장된 시간을 놀이·활동 위주로 운영하는 ‘더 놀이 학교(가칭)’추진을 논의하기도 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2020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놀이와 쉼 확대를 위한 교육시간과 교육공간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규정을 마련하고 놀이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모두 현 한국 사회 아동의 놀이와 여가 시간이 부족함을 진단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이다. 아동 놀이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동의 놀이와 여가 시간 확대는 여전히 요원하다.

키움센터의 놀이와 쉽 중심 운영 원칙 또한 놀이권을 아동의 기본권리로 인식하고, 아동의 놀이와 여가시간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놀이와 쉽 중으로 키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놀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명순 외(2017)는 놀이는 근본적으로 학업(공부)과는 차이가 난다면, 놀이는 자발성, 무목적성, 내적동기, 스스로 선택, 주도성, 융통성, 자유로운 선택, 즐거움과 유머를 갖는다고 하였다. 반면 학습은 이에 반하여 성인 주도의 계획성, 목적성, 외적동기, 시간표에 따라 선택, 성실함, 구조적, 미리 계획, 경쟁과 스트레스 속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더불어 아동의 진정한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논하였다. 첫째, 적절하고 적합한 시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자투리 시간이 아니라 아동이 놀고 싶을 때의 시간이어야 한다. 둘째, 열린 놀이 공간과 자연 공간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의 자발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 즐거움이 함께 있어야 한다. 아동의 자발성은 놀이의 시작과 끝,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것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키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놀이의 속성을 잘 갖고 있는지, 학습의 성격은 갖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놀이 중심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놀이 중심 운영을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놀이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키움센터가 잘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잘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들이 필요한지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 III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2. 아동최우선의 원칙 실현 실태
3. 지역사회수요기반의 원칙 실현 실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II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실태 분석

### 1. 조사개요

#### 1) 조사 목적 및 내용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 원칙 실현 실태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키움센터의 운영, 이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면접 내용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키움센터 운영원칙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키움센터의 역할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이용아동, 양육자, 종사자의 인식을 다양한 맥락에서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GI조사를 주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일정이나 요구에 따라서는 1:1 심층면접 조사를 함께 병행하였다.

조사내용은 키움센터 센터장에게는 센터 특성 및 종사자 현황, 운영 기본 현황 및 이용아동 현황, 키움센터 운영원칙에 대한 인식, 아동최우선의 원칙 및 PBL운영 현황, 지역사회 연계 현황, 운영 어려움, 정책개선 요구 등을 조사하였다. 양육자에게는 이용기관 특성 및 이용자녀 특성, 가구 특성 및 자녀양육 현황, 근로 특성, 키움센터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불만족 요인, 키움센터 운영원칙에 대한 인식, 키움센터 개선 사항 및 초등돌봄 관련 정책개선 요구를 조사하였다. 이용아동에게는 키움센터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키움센터에 대한 만족, 불만족 요인과 그 이유, 개선점 등을 조사하였다.

##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조사 진행과정

FGI조사 및 1:1 심층면접 조사는 키움센터 센터장, 이용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센터장, 양육자, 이용아동 각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최종 센터장 9명, 양육자 10명, 이용아동 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센터장은 자치구 및 운영형태(직영 vs. 위탁), 개원시기를 고려하여 참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구자가 직접 전화를 하여 참석 섭외를 요청하여 FGI조사와 1:1 심층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양육자와 이용아동은 연구에 참여한 센터장을 통해 섭외하였다. FGI조사에 참여한 센터장들에게 양육자와 이용아동 섭외를 요청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되, 이용아동은 연령과 성별, 이용 시기를, 양육자는 취업여부 및 가구 특성, 자녀 특성 등을 고려하였다. 다만 이용현황 및 인식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위해 해당 키움센터를 오랫동안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양육자와 이용아동 섭외를 요청 드렸고, 이 과정에서 키움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양육자와 이용아동이 연구참여자로 섭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센터운영과 이용에 대해 불만족한 아동과 양육자는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FGI조사와 1:1 심층면접 조사는 2020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진행되었다. 센터장 FGI조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하였지만, 이용아동과 양육자 조사는 모두 이용 중인 키움센터나 그 인근, 거주지 인근, 일하는 양육자의 경우 직장 인근에서 진행하였다.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12월에 진행된 양육자 I와 J, 이용아동 G, H, I 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불가피하게 전화면접과 온라인(화상)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시간은 최소 1시간~최대 2시간 30분까지 소요되었으며,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 녹취록을 작성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조사의 대략적인 개요는 <표 III-1>에 정리하였다.

【표 III-1】 FGI 및 1:1 심층면접 조사 개요

구분	연구참여자	일 자	장 소	소요시간
1	센터장 A, 센터장 B, 센터장 C	2020년 11월 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시간
2	양육자 A, 양육자 B, 양육자 C	2020년 11월 10일	참여자 거주지 인근 카페	2시간
3	이용아동 A, 이용아동 B, 이용아동 C	2020년 11월 10일	참여자 거주지 인근 카페	1시간
4	센터장 D, 센터장 E, 센터장 F	2020년 11월 1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시간 30분
5	센터장 G, 센터장 H, 센터장 I	2020년 11월 12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시간 30분
6	양육자 D, 양육자 E	2020년 11월 16일	참여자 직장 인근 카페	2시간
7	양육자 F, 양육자 G	2020년 11월 16일	양육자 G 자택	2시간
8	양육자 H	2020년 11월 18일	참여자 직장 인근 카페	2시간 30분
9	이용아동 D, 이용아동 E, 이용아동 F	2020년 11월 19일	○○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2시간
10	양육자 I	2020년 12월 1일	전화 인터뷰	1시간
11	양육자 J			1시간
12	이용아동 G, 이용아동 H, 이용아동 I	2020년 12월 11일	온라인(화상) 인터뷰	1시간

주: 조사 시기 순으로 정리하고, 구분 번호를 부여함



### 3) 연구참여자 특성

#### (1) 키움센터 센터장

키움센터 센터장은 총 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키움센터 센터장의 개인 특성 및 근무 중인 센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 센터장 A

학교에서 주택가를 지나 도보 5분에서 7분 거리에 위치한 공공시설 건물로 청소년 독서실이 있던 자리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개원했으며 해당 건물에는 구립 어린이집과 구립 청소년 아지트가 있고 바로 앞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주변 환경 특성이 타 돌봄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이라이트를 포함한 간단한 조리도와 공간이 있어 직접 조리한 급·간식 제공하였으나 코로나19이후 이용자의 급식비 부담으로 급식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센터장 A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복지관, 성폭력 피해 아동 지원기구인 해바라기센터 근무 경력이 있다. 돌봄교사는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사 1인 그리고 초임 돌봄교사 1인, 총 2명이 있다. 그 외 기타 인력으로는 청소를 지원해주는 노인일자리 8명, 아동지원 및 등 하원을 지원해주는 희망일자리 2명이 있다. 이용아동 비율은 고학년에 비해 저학년의 높은 편이다.

#### □ 센터장 B

상업지구에 위치한 민간 임대 건물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성인도보기준 8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다. 또 다른 학교는 십차선 대로를 두 개 지나야 올 수 있는 곳에 있다. 상업지구이고 아이들이 오기가 불편한 곳이라 “차량 운행하냐”가 가장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하였다. 학교와의 거리가 멀고, 상업지구에 속한 민간임대 건물이라는 점이 타 센터와는 다른 운영 어려움이다. 센터장 B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였으며 복지관 및 복지현장에서 14년간 근무 한 경력이 있으며 돌봄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그 외에 희망일자리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보조 인력이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저학년과 고학년의 이용비율이 유동적이다.

#### □ 센터장 C

2016년부터 마을 돌봄기관으로 운영해오다가, 2018년 6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전환되며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현재 구청 직영으로 운영 중이나, 2021년 1월부터 위탁 운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동 도보기준 5분 이내에 학교가 있으며 센터는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민간건물 단독주택으로 조리공간이 있어 직접 조리하여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당이 있어 바깥놀이가 가능하다. 센터장 C는 어린이집 교사, 서울시 보육반장이력이 있으며 2017년부터 마을 돌봄기관의 활동가로 근무하다 키움센터 센터장을 맡게 되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보조교사, 초등 방과 후, 음악학원 원장 등의 경력이 있는 돌봄교사들이 있으며 돌봄교사 중 한명은 조리가 가능한 돌봄교사로 채용하였다. 그 외 기타인력은 없다. 대부분의 이용아동은 저학년에 집중돼있다.

#### □ 센터장 D

학교에서 2~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공공시설로 해당 건물에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음식을 제공받아 배식하는 형태로 급식을 배식하고 있다. 센터장 D는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 초등 방과후돌봄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돌봄교사 1명은 13년간 방과 후 교실 이력이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다. 또 다른 돌봄교사 1명은 6개월간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음악적 재능이 있어 채용을 했다. 대부분 저학년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21명이 상시 이용 중인데, 1학년 5명, 2학년 10명, 3학년 5명, 4학년 1명이 있다. 5, 6학년은 현재 없다. 5학년은 한 달 정도 다녔던 아동이 있었다.

#### □ 센터장 E

인근 학교로는 100m, 200m, 500m 세 군데로 모두 도보 가능한 거리이다. 구립복지관 공공시설에 위치해 있다. 도시락을 구입해 제공하고 있으며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에 가서 먹고 오는 경우도 있다. 센터장 E는 유아교육전공자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돌봄교사 두 명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며 이중 한명은 아동학을 전공하였다. 돌봄교사들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 기타 인력으로는 방역을 담당하는 희망일자리가 있다. 대부분의 이용아동은 저학년이다.

#### □ 센터장 F

학교와의 거리는 약 200m로 아동도보기준 5분 거리이다. 교회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사용하기 전 작은 도서관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이다. 자치구 마을밥상과의 협약을 통해 공급받은 도시락을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 아동도 있다.

센터장 F는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으며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복지관 근무, 작은 도서관 운영 등의 경력이 있다. 영어교육을 전공한 돌봄교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 4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는 학교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기타 인력으로는 희망일자리, 어르신일자리가 있다. 이용아동은 상시 20명 중 1학년 5명, 2학년 2명, 3학년 7명, 4학년 3명, 5학년 3명, 일시는 1학년, 2학년, 6학년 각 한명씩 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하다.

#### □ 센터장 G

공공시설인 복지관에 위치해 있으며 3층, 4층, 5층의 일부를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교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없는 위치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왔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된 후 고학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저학년은 보호자 동행을 통해 이용하고 있다. 이 센터는 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비장애인 초등 돌봄과, 발달 장애아동 대상 사업을 통해 100% 구비로 운영되는 장애인 초등 돌봄이 있다. 키움센터에는 별도의 조리시설이 없지만 복지관 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구비를 통해 급식비를 지원받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센터장 G는 사회복지를 전공했으며 사회복지재단 근무, 복지관 장애 아동 대상 보육시설의 방과 후 담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돌봄교사들은 보육교사, 학교 초등 돌봄,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기타 인력으로는 희망일자리 1명이 있다. 비장애 아동과 장애아동 모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 □ 센터장 H

아파트 단지 내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내 어린이 도서관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다.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으며 6층부터는 일반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학교에서 센터까지 20분에서 25분 거리로 도보로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다. 조리공간이 있기는 하나 조리사가 없어 반찬 구입 후 간단한 음식은 인덕션으로 추가 조리해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장 H는 일반 회사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독서지도 논술을 한 경험이 있으며 방과 후 어린이집에서 원장대행으로 8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돌봄교사는 유치원 원장, 학교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으며 기타 인력으로는 희망일자리 2명이 있다. 이용아동비율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고르게 분포돼있는 편이다.

#### □ 센터장 I

인근에 4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모두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조리시설이 있어 직접 조리하여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장은 비행아동청소년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및 인성지도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29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8개월간 상담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3명의 돌봄교사 모두 상담치료센터에서 각각 30년, 7년, 3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기타 인력은 없다. 이용아동비율은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높은 편이다.

이상의 연구에 참여한 키움센터 센터장의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표 III-2>이다.

【 표 Ⅲ-2 】 연구참여자 특성(1): 키움센터 센터장

구분	면적	운영 방법	정원	이용아동 현황		종사자 현황		운영시간	이용료	방학 중 급식비 현황
				상 시	일 시	전 일	시 간			
센터장 A	182㎡	위탁	30	13	3	3	0	·학기 11:00~20:00 ·방학 09:00~19:00	월 5만원	1식당 5,000원
센터장 B	165㎡	위탁	30	21	2	2	2	·학기 13:00~19:00 ·방학 09:00~18:00	월 5만원	1식당 5,000원
센터장 C	95㎡	직영	29	29	1	2	2	·학기 13:00~20:00 ·방학 09:00~20:00	무료	무료
센터장 D	85㎡	위탁	20	21	0	3	0	·학기 13:00~20:00 ·방학 08:30~20:00	월 5만원	1식당 5,000원
센터장 E	75㎡	위탁	20	12	1	3	0	·학기 13:00~19:00 ·방학 09:00~19:00	월 5만원	1식당 5,000원
센터장 F	165㎡	직영	40	20	3	2	2	·학기 13:00~20:00 ·방학 08:00~20:00	월 5만원	1식당 5,000원
센터장 G	316㎡	위탁	45	31	4	4	4	·학기 13:00~19:00 ·방학 09:00~19:00	월 5만원	무료
센터장 H	118㎡	직영	20	12	1	1	2	·학기 13:00~19:00 ·방학 09:00~18:00	월 5만원	1식당 5,000원
센터장 I	186㎡	위탁	20	8	1	2	2	·학기 10:00~19:00 ·방학 09:00~18:00	월 5만원	1식당 5,000원

주: 1) FGI조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일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 내부자료(2020.10.31. 기준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현황)를 참고하였음  
 2) 이용아동 현황은 FGI진행한 시점의 이용아동 현황임. 센터장 A, B, C는 11월 1주, 그 외는 11월 2주 이용아동 현황임  
 3) 어느 키움센터인지 유추할 수 있는 정보(소속 자치구 및 개원일 등)는 조사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본 표에서 제외함

## (2) 양육자 특성

연구에 참여한 10명의 양육자의 근로 및 자녀 특성, 키움센터 이용 특성 등은 다음과 같다.

#### □ 양육자 A

A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중3, 중1 여아 둘과 초등 4학년 남아, 총 3명의 자녀가 있다. 초등 방과후 교사로 일을 하며, 근무시간은 규칙적이지 않으나 평균 주 9시간 정도 일을 한다. 이용 중인 키움센터 센터장의 지인으로 개원 전부터 키움센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돼 개원할 때부터 이용했으며 현재 이용아동인 4학년 남아 외에도 현재 중1인 여아도 초등 6학년까지 이용했었다. 주 5일 하교 후부터 오후 5시 혹은 6시까지 상시로 이용했지만, 초등 방과후 교사로 코로나19 이후 일이 없어 현재는 가정 양육을 하며 키움센터 이용 또한 잠시 쉬고 있다. 자녀는 키움센터를 가고 싶어 하나, 가정 양육을 하는 이유를 키움센터 내 아동 밀집도를 줄이고, 일을 해야 하는 양육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양육자 A는 A구 보드게임 마을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키움센터의 보드게임강사로 재능기부도 하고 있다. A구 1호점은 이용료와 급식비가 모두 무료이며 이용 지불 금액은 없다.

#### □ 양육자 B

A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6학년과 3학년 남아 둘을 양육하고 있으며 3학년 아동만 주 5일 하교 후부터 5시 혹은 6시까지 이용하는 상시 이용자다. 주로 하교 후 키움센터에 갔다가 학원을 이용하고 집으로 귀가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원을 마치고 키움센터로 다시 갔다가 귀가하기도 한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돌봄 공백으로 인해 퇴사하게 됐고 주변 학부모들을 통해 키움센터에 대해 알게 돼 이용하기 시작했다. 키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고 있다. 출근 요일이 불규칙하고 예정에 없던 출근을 갑자기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자신과 같이 틈새돌봄이 필요한 양육자에게 키움센터는 매우 적합한 방과후 돌봄기관이라고 하였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양육자 A와 동일하게 키움센터 내 아동 밀집도를 줄이고 출근을 하며 일을 해야 하는 양육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육자 B는 자녀를 키움센터에 보내지 않고 가정 양육을 하고 있다. A구 1호점은 이용료와 급식비가 모두 무료이며 이용 지불 금액은 없다.

#### □ 양육자 C

A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3학년 남아와 20세 남아를 두고 있으며, 가정에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키움센터를 이용 중인 3학년 남아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했었으나, 초등돌봄교실 공사 기간 동안 학교에서 A구 1호점 키움센터를 연계해주면서 이용하게 되었다. 자녀가 초등돌봄교실보다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여, 대기아동으로 등록 후 자리가 나면서 A구 1호점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키움센터 외 학원 등 타 기관은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학기 중에는 하교 후 오후 5시까지, 현재는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A구 1호점은 이용료와 급식비가 모두 무료이며 이용 지불 금액은 없다.

#### □ 양육자 D

B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2학년 여아, 3학년 남아 남매를 양육하고 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 일해 왔으나 일과 양육 병행에 어려움이 있어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가 가능한 곳으로 옮겨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여서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시기 필요한 사람들은 정작 제도 혜택을 볼 수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키움센터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는 자녀들만 집에 놔두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가서 점심을 챙겨주면서 돌봄을 해결했다고 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했으나 오후 5시까지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현 키움센터로 옮기게 되었다. B구 1호점은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과 같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어린이집에서 키움센터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주 5일 상시 이용하고 있으며 키움센터 이용시간은 학원 등 기타 교육기관의 스케줄에 따라 1시 30분까지 이용하거나 3시 30분까지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급식비가 늘어나면서 월 이용료와 급식비로 1인 9만원에서 15만원 지불하고 있으며, 남매 두 명 모두 이용하고 있어 최대 30만원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

#### □ 양육자 E

B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2학년, 6학년 형제를 양육하고 있으며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가 가능한 직장을 구하였으며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없어, 코로나19로 키움센터 마저 문을 닫았을 때는 친인척 및 주변 지인 등 모두 동원해서 돌봄공백을 해결했다며, 전쟁 같았다고 표현하였다. 양육자 D와 동일한 어린이집을 이용, 어린이집 이용 때부터 알던 사이이며, 양육자 D와 동일하게 어린이집과 같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 키움센터 정보를 어린이집을 통해 알게 되었다. 주 5일 상시 이용하고 있으며 키움센터는 오후 5시까지 이용하고 있다. 2학년 아동만 이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급식비가 늘어나면서 월 이용료와 급식비로 10만원 초반대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 □ 양육자 F

B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2학년 남매 쌍둥이 자녀가 있다. 쌍둥이 양육으로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영유아기때부터 정부 아이돌보미, 민간 베이비시터 등 다양한 공적·사적 돌봄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양육 병행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는 구할 수 없었고, 중간중간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해왔다. 초등학교 입학 직후에는 일을 쉬고 있는 기간이라, 맞벌이 가정의 아동에 우선순위가 있는 초등 돌봄 교실은 신청할 수 없었다. 학교 앞에서 제공받은 키움센터 홍보 리플렛을 통해 키움센터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주변 학부모들의 설명으로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된 후 키움센터를 이용하게 되었다. 현재는 주변 초등학교의 급식 지원 인력으로 주 13시간 정도 일을 한다. 주 5일 상시 이용하고 있으며 5시에 귀가한다. B구 1호점 월 이용료 및 급식비로 최대 1인 15만 원 정도 지불 했으며 쌍둥이 남매 2인 총 이용비용은 약 30만원이다.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해왔으며, 기존 이용했던 돌봄서비스에 비하면 질도 좋도 비용도 저렴한 것 또한 현 키움센터 이용에 대해 만족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 □ 양육자 G

B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초등 2학년 남아를 양육하고 있으며 9시 30분부터 2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이다. 코로나19로 ○○구 1호점이용이 제한되었을 때 긴급돌봄으로 초등학교교실을 잠시 이용했으나 아동의 의사대로 다시 B구 1호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키움센터 이용 중간인 2시~3시 사이에 학원을 갔다가 다시 키움센터로 돌아온 후 5시에 귀가한다. 코로나19로 원래 하던 일을 못하게 되고, 현재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 또한 긴급돌봄을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키움센터가 없었으며 현 직장마저 그만두어야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 □ 양육자 H

C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3세, 7세, 9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9세 여아가 현재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자녀출산 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직장에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는 상용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어,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초등학교교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초등학교교실 이용시간이 오후 5시로 제한되어 있어 추가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안전한 틈새 돌봄의 필요성을 느껴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에 연락한 후 키움센터 개소를 건의하고, 직접 설치 장소를 알아보는 등 C구 5호점 개소에 큰 기여를 하였다. 오전에는 학교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어 점심과 온라인수업 지원은 학교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하교 후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 중인 학원 일정에 따라 오후 6시 또는 오후 3시 30분까지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3세, 7세 자녀는 모두 동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오후 6시까지 이용, 조부모의 차량을 통해 세 자녀가 모두 하원을 한다. 초등학교교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초등학교교실에 비해 키움센터가 갖는 장점들을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으며, 키움센터의 놀이와 쉽 중심 운영, 아동 주도 운영에 만족도와 만족하는 만큼 지금보다 더욱 강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가장 강조하여 이야기한 연구참여자이다.



#### □ 양육자 I

D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1학년, 4학년 남아 둘을 양육하고 있으며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학부모들을 통해 D구 4호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게 되었다. 1학년 남자 아동만 D구 1호점을 이용하고 있고 4학년 아동은 지역 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돌봄기관에 보내고 있다. 주 5일 상시 이용자로 하교 후부터 오후 5시 혹은 6시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급식비 지불이 늘어나면서 월 이용료와 급식비로 최대 15만 원 정도 지불했다.

#### □ 양육자 J

D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7세, 10세 남아 형제를 양육하고 있다. 7세 자녀는 양육자 J의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키움센터를 이용 중인 10세 남아는 2학년 때까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은 2학년까지만 이용이 가능해 상용 근로자인 양육자 J는 돌봄공백을 해소할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D구 4호점 만들어질 당시에는 키움센터의 기능을 몰랐으나 학부모들을 통해 키움센터에 대해 알게 됐고 3학년때부터 D구 4호점을 이용하였다. 주 5일 상시 이용자로 하교 후, 현재는 오전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이용하나 상황에 따라 7시까지 이용하기도 한다. 코로나 19로 급식비 지불이 늘어나면서 월 이용료와 급식비로 최대 15만 원 정도 지불했다.

이상의 연구에 참여한 양육자의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표 III-3>이다.

표 Ⅲ-3 연구참여자 특성(2): 양육자

구분	이용 센터	이용 기간	아동 특성			양육자 근무 특성 <sup>1)</sup>
			학년/성별	이용 횟수	기타 교육 기관 이용 현황 및 센터 이용 패턴	
양육자 A	○○구 1호점	3년차	4학년 남아	상시 주 5일	-태권도, 축구, 영어 ·키움센터→학원→귀가	초단시간 근로자 (초등 방과 후 강사, 주 9시간 근무)
양육자 B	○○구 1호점	2년차	3학년 남아	상시 주 5회	-논술, 미술 ·키움센터→학원→귀가	단시간 비상근 근로자(출퇴근시간이 불규칙함)
양육자 C	○○구 1호점	2년차	3학년 남아	상시 주 5일	-이용 중인 타 기관 없음 ·키움센터→귀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식품 제조 및 판매)
양육자 D	○○구 1호점	2년차	2학년 여아	상시 주 5일	-수영, 피아노 ·키움센터→학원→귀가	단시간 근로자(10시 ~ 17시 근무)
			3학년 남아	상시 주 5일	-수영, 피아노 ·키움센터→학원→귀가	
양육자 E	○○구 1호점	2년차	2학년 남아	상시 주 5일	-검도, 수영, 영어 ·키움센터→학원→귀가	단시간 근로자(10시 ~17시 근무)
양육자 F	○○구 1호점	2년차	2학년 남아	상시 주 5일	-태권도 ·학원→키움센터→귀가	초단시간 근로자 (초등 급식 지원 업무, 주 13시간 근무)
		2년차	2학년 여아	상시 주 5일	-피아노 ·학원→키움센터→귀가	
양육자 G	○○구 1호점	2년차	2학년 남아	상시 주 5일	-태권도, 축구 ·키움센터→학원 →키움센터→귀가	단시간 근로자(어린이집 조리사, 9시 30분~14시 시까지 근무)
양육자 H	○○구 5호점	1년차	2학년 여아	상시 주 5일	-태권도, 영어 ·학교 긴급돌봄→학원 →키움센터→학원→귀가 ·학교 긴급돌봄→키움센터 →학원→귀가	상용 근로자 (9시~18시 근무)
양육자 I	○○구 4호점	1년차	1학년 남자	상시 주 5일	-영어 ·학교 방과후 교실 →키움센터→학원→귀가	단시간 근로자 (9시~16시까지 근무)
양육자 J	○○구 4호점	1년차	3학년 남자	상시 주 5일	-피아노, 축구 ·키움센터→학원 →키움센터→귀가	상용 근로자 (9시~18시 근무)

주: 1) 양육자 근무특성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함. 상용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 중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환산시 60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함

### (3) 이용아동

연구에 참여한 키움센터 이용아동은 9명이다. 이용아동의 개인 특성 및 키움센터 이용 특성은 다음과 같다.

#### □ 이용아동 A

3학년 여아로 A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8세, 6세, 4세 동생이 있으며 8세 동생 또한 키움센터 이용 대기자로 2021년 1월부터 이용예정이다. 집에서 키움센터 까지는 도보 3분 거리로 가까운 편이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으며, 초등돌봄교실에 비해 키움센터가 좋다고 하였다. 키움센터 외에 논술 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발레학원도 다니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더 이상 다니고 않고 있다. 하교 후 오후 4시 30분 혹은 5시까지 키움센터를 이용한다.

#### □ 이용아동 B

3학년 여아로 A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5학년 오빠 또한 함께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키움센터와 가까운 곳에 살다가 이사를 하여 집과 키움센터의 거리는 도보 1시간 걸린다. 학교 정문 바로 앞에 키움센터가 있기 때문에 하교 후에 키움센터에 오기는 좋다. 하교 후, 현재는 오전부터 오후 7시 혹은 8시까지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부모의 차량으로 귀가를 하거나 대중교통 혹은 도보로 자율 귀가하기도 한다.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은 없으며 태권도와 피아노 학원을 키움센터와 함께 이용하고 있다.

#### □ 이용아동 C

3학년 남아로 A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해왔으나 학교 공사로 이용이 중단되면서 학교의 소개로 키움센터를 이용했다. 키움센터를 이용해봤더니 너무 좋아 대기아동 등록 후 키움센터를 이용하게 되었다. 주 5일 오후 5시까지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집에서 키움센터 까지는 도보로 15분, 학교와 키움센터는 도보 2~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키움센터외 타 기관은

이용하지 않고 있다.

□ 이용아동 D

2학년 남아로 B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6학년 형이 있으며 형은 키움센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주 5일 상시 이용하고 있으며 영어와 검도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학원 스케줄에 따라 오후 1시 40분까지 이용하거나 3시까지 이용하고 있다.

□ 이용아동 E

3학년 남아로 B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있다. 외동이며, 키움센터에 와서 친구뿐만 아니라 동생, 형, 누나들을 만나는 것도 즐겁다고 하였다. 키움센터 리플렛을 통해 키움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고 상시 주 5일 이용하고 있다. 키움센터 외에 주 1회 과학실험 학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원을 가는 날은 오후 3시 40분까지, 그 외 주 4일은 오후 5시까지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 이용아동 F

2학년 여아로 B구 1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남매 쌍둥이며, 쌍둥이 남아와 함께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이용한 경험이 없다. 키움센터 외에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오후 5시까지 키움센터를 이용한다. 부모님께 연락을 하여 5시 전에 자율 하원하는 경우도 있다.

□ 이용아동 G

3학년 남아로 D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5학년 누나가 있는데 5학년 누나는 키움센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 키움센터 외에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다. 학원 일정에 따라 오후 3시까지 혹은 5시까지 이용하며 키움센터에서 집까지 거리가 있어 전철을 통해 자율 귀가를 하고 있다.

#### □ 이용아동 H

3학년 남아로 D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7세 남동생이 있다. 2학년때까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했으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는 3학년이 되자 키움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키움센터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도보 10분정도 걸린다. 키움센터 외에 피아노 학원과 축구 학원을 다니고 있다. 키움센터 이용 후 학원을 가거나, 키움센터 이용 중간에 학원을 다녀오기도 하며 오후 6시 30분까지 이용하고 있다.

#### □ 이용아동 I

3학년 여아로 D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 이용 경험이 없으며, 외동이다. 키움센터 외 피아노 학원을 이용 중이며, 주 5일, 오후 3시 30분 혹은 4시까지 이용한다. 부모가 키움센터로 와서 하원을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이용아동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표 III-4>이다.

표 III-4 연구참여자 특성(3): 이용아동

구분	이용 센터	학년	성별	이용 기간	이용 패턴
이용아동 A	○○구 1호점	3학년	여아	2년차	키움센터→학원→귀가
이용아동 B	○○구 1호점	3학년	여아	3년차	키움센터→학원→키움센터→귀가
이용아동 C	○○구 1호점	3학년	남아	2년차	키움센터→귀가
이용아동 D	○○구 1호점	2학년	남아	2년차	키움센터→학원→귀가
이용아동 E	○○구 1호점	3학년	남아	2년차	키움센터→학원→귀가 또는 키움센터→귀가
이용아동 F	○○구 1호점	2학년	여아	2년차	학원→키움센터→귀가
이용아동 G	○○구 4호점	3학년	남아	1년차	키움센터→학원→귀가 또는 키움센터→학원→키움센터→귀가
이용아동 H	○○구 4호점	3학년	남아	1년차	키움센터→학원→키움센터→귀가
이용아동 I	○○구 4호점	3학년	여아	1년차	키움센터→학원→귀가

## 2. 아동최우선의 원칙 실현 실태

I 장의 <그림 1-1>에서 제시하였듯이 아동최우선의 원칙은 놀면서 배우는 공간이라는 키움센터 운영 방향과 연결하여 아동 주도로, 놀이와 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로 구체화하여 실현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키움센터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용아동과 양육자의 응답에서 드러나는 아동최우선의 원칙 실현 실태를 가장 먼저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아동최우선의 원칙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키움센터 센터장과 양육자의 조사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아동 주도, 놀이와 쉽 중심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 1) 키움센터에 대한 아동과 양육자의 인식을 통해 본 아동최우선의 원칙 실현 실태

#### (1) 아동 인식: 놀 수 있는 곳,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곳

아동최우선의 원칙에서 아동 주도는 가장 우선시 되는 가치이다. 아동 주도는 놀이의 요소로도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아동최우선의 원칙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볼 때,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최우선 원칙의 조건들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들이 키움센터를 어떤 공간으로 느끼는지, 어떤 점에서 만족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시각에서의 키움센터 아동최우선의 원칙 실현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아동들은 키움센터가 학교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보다 더욱 좋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 놀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꼽았다. 이용아동들의 시각에서 키움센터는 아동 주도로, 놀이와 쉽 중심 운영이 이루어지는 곳 이었다. 아동들이 아동 주도, 놀이와 쉽 중심의 운영 때문에 키움센터를 좋아한다는 것은 아동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향후에도 아동 주도, 놀이와 쉽 중심 운영원칙을 더욱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좋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아동 A는 키움센터에서 제일 좋은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놀 수 있어서 특히, 밖에서, 마당에서 놀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아동 C또한 “다 좋은데 노는 거요”라며 놀 수 있다는 것을 키움센터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키움센터에 매일 오고 싶다는 아동 D는 특히, 키움센터에서, 그리고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는 점을 키움센터가 좋은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아동들이 모두 키움센터와 함께 놀이를 떠올리고 놀이 때문에 키움센터를 좋아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키움센터의 놀이 중심 운영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일단 밖에 놀아서 좋고, 가을소풍도 좋고 그리고 또 마당에서 놀 수 있어서 제일 좋아요.  
(연구진: 노는 것이 제일 좋구나?) 네! (아동 A)

다 좋은데 노는 거요(아동 C)

저는 저희 집에는 뛰어놀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놀이터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좋고 (중략) (키움센터에) 거의 맨날 오고 싶어요. (아동 D)

학교와 키움센터를 비교하는 아동들의 이야기에서 키움센터의 놀이와 쉽 중심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학교보다 키움센터가 좋다는 아동 A, B, C는 그 이유로 “학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데 키움센터는 놀 수 있어요, 학교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아동 B)” “학교는 가림판도 있고 밥도 맛있는데 키움센터는 밥도 맛있고 뛰어놀 수 있잖아요(아동 A)” “학교는 주구장창 공부만 해야하고 쉬는 시간도 없어요 진짜로(아동 C)”를 꼽았다. 아동들의 시각에서 학교는 아동들에게 놀이와 쉽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는 곳이다. 이와 달리 키움센터는 뛰어 놀 수 있는 곳, 쉬는 시간이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아동들은 키움센터를 좋아한다.

당연히 키움센터가 더 좋죠. 학교에서는 주구장창 공부만 해야만 하고 쉬는 시간도 없어요, 진짜로 (아동 C)

(학교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 5분 있는데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안 줘요. (아동 B)

일부 아동들은 집에 있는 것보다 키움센터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했는데, 그 이유 또한 집에는 놀게 없어서 심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아동들에게 키움센터는 놀게 많은 심심하지 않는 곳이다.

다음으로 키움센터에서 논다는 것은 누군가와 놀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은 조금 더 확장하면 ‘누구를 만나서’ 놀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들이 키움센터를 좋아하는 다양한 이유 속에서 키움센터에서의 또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누군가와의 만남 또한 아동들이 좋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키움센터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에 놀게 없어서 키움센터가 더 좋다는 아동 C의 이야기에 아동 A는 자신의 집에는 한방을 가득 채울 만큼 놀게 많아도 집은 심심하다고 하였다. 반면 키움센터에 오면 친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심심하지 않아 좋다고 하였다. 아동 D와 E 또한 친구들을 만나서 놀 수 있어서 키움센터 오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아동 D는 학교보다 놀 수 있는 것도 많고 친구들도 훨씬 많아 키움센터가 학교보다도 좋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연구자: 키움센터에 오면 안 심심한 이유가 뭐예요?) ○○이랑 ○○이를 만나서요, 절친이예요. (아동 A)

저희 집에는 보드게임을 조금 있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서 여기 오면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중략) 학교에서는 막 쉬는 시간에 자꾸 놀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여기 오면 놀 수 있는 것도 많고 친구들도 훨씬 더 많고 여기서도 간식 같은 것도 많고 시간에 맞춰서 그런 게 좋아요. 학교보다 (아동 D)

저는 여기 올 때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고요. (아동 E)

키움센터에서의 놀이 관계는 또래 친구와의 관계로 제한되지 않는다. 초등 전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키움센터는 20명 남짓의 이용아동 간에도 다양한 연령이 섞여 있다. 또래관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고 적은 아동들과의 관계가 키움센터에는 존재한다.



이 역시 아동들은 좋은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아동들은 친구뿐만 아니라 언니, 동생 등 타 연령의 아동과 친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키움센터의 장점으로 꼽았다. 아동 A는 키움센터 활동 중 파자마파티를 가장 즐거웠던 활동으로 꼽았는데 그 이유를 “별로 안친한 언니, 오빠랑 친해질 수 있었거든요”라고 답하였다. 키움센터의 다양한 연령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이후 양육자 인식 조사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저는 파자마파티가 왜 재미있었냐면요, 별로 안 친한 언니 오빠랑도 친해질 수 있었거든요, 저녁도 같이 먹고요. (아동 A)

### ▶ 코로나19 시기, 더욱 중요한 놀이 중심 키움센터 운영

코로나19 시기, 키움센터에서 친구들을 만나 놀 수 있다는 것은 아동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아동 A와 C는 이용 중인 키움센터에서 했던 활동 중에 가을소풍(가을 운동회)가 가장 좋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했었는데 다 같이 모여서 뛰니까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아동 D 또한 학교보다 키움센터에 친구들이 많아 좋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반 친구들을 다 못나고 그래서 친한 친구가 별로 없다고 하였다. 키움센터에 오면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그 만큼 친한 친구가 많아진다. 아동 G도 코로나로 친구들을 못만나는 시기, 키움센터에서는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노는 게 너무 재미있다고 하였다.

(연구자: 가을소풍이 왜 제일 재미있어요?) 다 같이 모여서 뛰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했었는데 나가니까(아동 A)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다 만나지를 못해서 친한 친구도 별로 없고 여기에는 많이 만나봐서 친한 친구도 많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아동 D)

지금 코로나라서 되게 원래는 못만나는데 여기(키움센터)서는 친구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또 같이 노는게 너무 재미있어요. (아동 G)

코로나 19시기, 학습 결핍과 학습 격차 심화가 문제로 많이 지적되고 있지만,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놀이를 경험해야 중요한 시기에 또래와의 상호작용 결핍, 다양한 대면 만남과 활동의 결핍, 실내외 놀이활동 결핍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들을 만날 수 없었는데 키움센터에 오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놀 수 없었는데 키움센터에 오면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놀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이는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 시기, 키움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감염병 위기 시기 안전하게 친구들을 만나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서 키움센터는 더욱 중요하다.

#### ○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

FGI조사 결과, 아동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자신들의 의견이 실제 키움센터 운영에 반영되는 것 또한 키움센터의 좋은 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키움센터가 좋은 이유, 특히 초등돌봄교실과 키움센터 간 차이를 설명하는 아동들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드러났다.

아동 B는 ‘선생님이 해달라는 것을 다해주는 것’을 키움센터에서 제일 좋은 점으로 꼽았다. 초등돌봄교실보다 키움센터가 좋은 이유에서도 키움센터에서 주어지는 자율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 B는 초등돌봄교실보다 키움센터가 더 좋으며, 초등돌봄교실에서는 공부와 책읽기를 해야 하고, 놀다가 간식을 먹고 또 다시 책을 봐야하며 만들기 재료 또한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아동 B는 초등돌봄교실을 정해져 있는 일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선생님의 허락에 따라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키움센터는) 선생님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 해주세요. (아동 B)

그런데 거기(초등돌봄교실)는요 공부를 해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블록가지고 노는 곳에 블록은 없고요. 아무튼 놀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거기가면 오자마자 책을 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놀다가도 잠시 간식을 다 먹으면요 또 책을 봐야 해요. (중략) 거기에 만들기 재료를요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가져가야해요. (아동 B)

아동 C는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것과 함께 밥이 맛있다는 것을 키움센터의 좋은 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아동 C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밥이 맛있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요리를 잘한다는 측면보다도 아동들이 먹고 싶은 메뉴가 식단에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C는 선생님이 어떤 것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해주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먹고 싶은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아동 C에는 매우 큰 키움센터의 장점이며,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키움센터에서 먹는 밥을 맛있게 느꼈을 것이다.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정말 원하는 무엇인가를 한다면, 아동들이 원하는 것이 키움센터 운영에 반영된다면 그 활동은 좋고 즐거운 것이 된다.

앞의 놀이활동과 함께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일과 구성의 자율성, 시간 활용의 자율성, 활동 구성의 자율성이 키움센터 운영에 대한 이용아동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의 중요성은 이후 살펴볼 양육자의 인식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 (2) 양육자 인식: 또래 관계, 돌봄관계가 있는, 아동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곳

아동 중심, 놀이와 쉽 중심 운영에 대해 연구에 참여한 양육자 대부분은 동의하고 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물론 양육자 D와 E 같이 일부 양육자들은 학습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다. 키움센터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볼 점은 키움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고, 키움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양육자들은 모두 아동최우선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깊다는 점이다. 이는 양육자들의 키움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도 아동최우선의 원칙 실현을 공고히 하고 키움센터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리는 것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 관계가 있어서 좋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아동들 또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키움센터의 장점 중 하나로 꼽았는데, 양육자들 또한 또래,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키움센터의

장점으로 꼽았다. 양육자 A는 “또래가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어 항상 놀 수 있어서” 아이가 좋아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양육자 A 또한 만족스러워 하고 있었다. 양육자 H 또한 다양한 연령과의 교류를 통해 아이의 시야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령이 함께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이는 좋아하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생각하고 엄마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하고, 너무 좋아하죠. (연구자: 어떤 면이 가장 좋다고 하나요?)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같이 놀 또래가 없지만 거기는 항상 또래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으니까 항상 놀 수 있는...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놀고 오고 (양육자 A)

네. 형님들한테 그런 것도 보고 배울 수 있고 경험치가 다르니까. 어떤 걸 판단하거나 할 때도 조금 아이들의 시야가 확장되는 것 같아요. (중략) 클수록 뭔가 한계나 제약이 많아 지잖아요 그런 걸 깨나가는 것도 큰 아이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중략) 그런 게 되게 큰 배움인 것 같아요. (양육자 H)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다가 키움센터를 이용하면서 초등돌봄교실은 완전히 끊었다는 양육자 H는 키움센터에 훨씬 만족한다며, 그 이유를 “초등돌봄교실에는 관계성이 없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학교 교실에서는 친구들과의 간단한 대화조차 제지당하고 친구와 필담을 나누는 것에 대해 “애가 그냥 거기 있었던 것”이라고 표현하며, 의미 없는 공간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인간 관계,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없는 초등돌봄교실, 학교에서의 생활은 의미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키움센터에 훨씬 만족해요. 초등돌봄은 아이를 관리하시는 느낌. (중략) 저는 돌봄에서 중요한 게 관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좀 관계성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물론 이런건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긴 해요. (양육자 H)

막 너무 시끄럽게 대화하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간단한 대화는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굉장히 강하게 뭐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림판을 만들어 놓고.. 애가 거기 있는 거지.. 그냥 거기 있었던 거죠. 코로나지만 갈 데가 없었는데 그냥 거기서 있을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친구랑 필담을 나누더라고요. 대화를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한 달 남짓? 하고.. (양육자 H)

정재훈·정창호(2018)은 독일 전일제학교의 실태를 분석하며 돌봄, 행복 등의 용어가 한국 초등교육 현장에서 강조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지식 전달 장소의 의미가 강하며 학교 교실을 생활의 장소, 돌봄의 장소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많이 못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학교와 돌봄교실에 대해 ‘관계가 없다, 아이가 그냥 공간에 있는 것에 불과했다, 행정 중심이다, 아이의 마음 돌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양육자 H의 이야기도 이와 유사하다.

네. 친구를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누구야 하면서 달려가는데 딱 안돼. 그래서 안녕.. 그런 게 저는 너무 방역차원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거지만 아이들의 마음돌봄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저는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데 학교에서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듯한.. 그런 게 여기에 아이들은 있는 건가? 이럴 거면 아예 학교 문을 닫지? 그렇게 불안하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양육자 H)

코로나19와 함께 학교가 문을 닫으며 발생한 광범위한 돌봄 공백의 문제는 학교가 교육기관이기도 했지만, 초등아동 돌봄 기능이 함께 수행되는 곳임을 일깨워주었다. 이는 한편으로 초등아동들에게 교육과 돌봄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또래 관계를 포함한 사회 관계의 기초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초등아동들에게 이를 경험할 수 있는 키움센터는 큰 의미가 있다. 또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돌봄 관계가 살아있는 키움센터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나아가 학교 또한 교육, 학습의 공간으로만 그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돌봄과 교육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 ○ 아동들에게 특정 활동을 강제하지 않는 곳

양육자 B는 자신의 자녀가 키움센터의 다락방, 책있는 공간을 좋아한다며, “누가 이거해 저거 해 강요하지 않아서 저는 그게 좋았던거 같다”고 하였다. 책을 보다가 친구들 놀이에 같이 끼고 싶으면 낄 수 있는 것, 특정 활동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은 것,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아동 주도의 운영을

키움센터의 장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저희 아이는 대체로 아이가 좋아하는 공간은 다락방 책 있는 공간을 좋아해요. 애는 꿈 박혀서 거기서 책 보다가 심심하면 친구들 노는 것 보고 같이 끼고 싶으면 껴다가 누가 이거 해 저거 해 강요하지 않아서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고 (양육자 B)

아동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키움센터는 모든 아동들이 일괄적으로 따라야 하는 시간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양육자 A는 초등돌봄교실과 키움센터를 비교하며, 초등돌봄은 ‘스케줄에 맞추다 보고, 아동 개별의 의견보다는 다수결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아이들이 경직되어 있다’고 하였다. 양육자B는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학교와 키움센터의 다른 점으로 키움센터에서는 “자율성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클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시간의 제약도 없고 놀잇감에 대한 제약도 없이,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놀이를 하는 것, 자율성과 주도성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이것이 곧 키움센터의 아동최우선의 원칙을 의미한다. 양육자 H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키움센터가 아동의 주체성이 훨씬 크며, ‘애들이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생일파티 기획 프로그램이 자녀가 키움센터에서 했던 활동 중 가장 좋았다고 하였다.

돌봄에 있을 때 너무 애들이 경직되고 있고 키움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연구자: 어떤 부분 이...) 거기는 스케줄 맞춰서 아이들을 케어 해야 하는 거예요. 1시부터는 보드 해야 해, 끝났어. 전래놀이가, 끝났어, 그다음 도서관 가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스케줄에 맞춰서 아이들 보내야하고 애들은 ‘나 이거 지금 하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다수결 했잖아. 운동장 가기로 다수결 했으면 가야하는거야.’ 아이들 인권이 있는데 자기 의견보다는 다수결에 따라서, 나는 지금 쉬고 싶은데, 편하게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 하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스케줄을 따라서 아이들도 힘들겠더라고요. (양육자 A)

(연구자: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하는 것과 여기(키움센터)에서 하는 것은 다르다 뭐 이런 건 있을 까요?) 자율성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시간의 제약도 없고 놀잇감에 대한 제약도 없고, 보통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런 제약이 아이들은 스트레스인데 그냥 네가 쉬고 싶으면 다락방 가서 쉬면되고, 놀고 싶으면 저기서 선생님한테 시간만 되면 아이들과 논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스탱은 없잖아요. 자기 스케줄이

맞춰서 노는 거잖아요. 자율성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양육자 B)

주체성은 키움센터가 훨씬 더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인상깊었던 게 이번달 친구인 친구의 생일파티를 기획하는 걸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좋았어요. 선생님 오셔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기보다 애들이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의논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제가 제일 만족스러웠던 건 그 생일파티고요. 죽이되든 밥이되든 아이들이 그걸 해볼 수 있었다는거? 요즘에는 학급에서도 그런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연령대도 섞여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양육자 H)

양육자 A와 B, H의 이야기처럼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키움센터의 활동, 일과 구성에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후 키움센터에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 하는 것을 아동 주도, 놀이 중심으로 볼 수 있는가를 논의할 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 키움센터 이용을 통해 확산되는 놀이 중요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

아래 이야기처럼 양육자 A는 저학년 아이들은 많이 놀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녀 3명을 모두 키움센터에 보냈던 양육자 A는 키움센터 이용을 통해 아동기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사례이다. 양육자 A의 자녀가 이용 중인 키움센터는 센터장 C의 키움센터이다. 이후 센터장 C의 이야기에서 드러나지만, 센터장 C는 키움센터 운영 초기 놀이와 쉽 중심의 운영을 자리매김하는데 양육자들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였다.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놀이와 쉽 중심의 운영에 동의하는 양육자들만 남았고 오히려 그것이 키움센터의 놀이와 쉽 중심 운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저학년 아이들은 많이 놀아야한다고 생각해요. 많이 뛰어 놀고 많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저는 충분히 놀고 충분히 하면 나중에는 하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시켜서 내가 조바심 내서 그렇게 학습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중략) 좀 많이 자연에서 뛰어놀고 많이 친구랑 대화하면서 에너지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양육자 A)

이는 키움센터 이용을 통해 놀이의 중요성을 양육자들이 인식하게 되고, 이에 동의하는 양육자들이 키움센터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놀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학습지원에 대한 양육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습지원을 하고, 놀이와 쉼 중심의 운영원칙에 혼란을 야기하기 보다는, 키움센터를 통해 놀이 중요성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도 놀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키움센터를 통한 놀이 중요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놀이 중요성에 대한 양육자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키움센터에서 놀이 중심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도구인 PBL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이용자 인지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아래의 양육자 D와 E의 사례는 PBL활동 등, 아동최우선의 원칙에 대한 양육자들의 인식이 다소 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에 부모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양육자 D는 돌봄협의회 회의에서 PBL를 처음 들어봤다고 하였다. 양육자 D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2~3달에 한번 씩 운영되는 키움센터 부모모임에 한번 참여를 한 적 있으나, PBL이야기를 했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였다. 양육자 E는 사전에 FGI조사지를 받고 PBL활동이 무엇인지를 연구진에게 물어봤었다. 양육자 D와 같은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양육자 E는 키움센터의 부모모임에 모두 다 참석을 했지만 못들어봤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였다. 키움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인 PBL활동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거 말고도 회의가 있어서 ○○구 회의가 있었을 때 센터장님과 함께 참석을 했었어요. 네, 그때 사실 PBL을 처음 들어봤죠. 부모모임 저희가 원래 코로나 전에는 2달에 한번? 3달에 한번? 있었는데 저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때도 PBL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요. (양육자 D)

저는 (부모모임에) 다 참석했는데 (PBL에 대해서는) 못 들어 봤습니다. (양육자 E)

PBL활동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함께 키움센터를 통해 양육자들에게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키움센터가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사회 노력을 견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2) ‘아동 주도’, 아동 자율성 보장 실태

앞의 키움센터에 대한 아동과 양육자 인식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아동들이 키움센터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키움센터에서 보내는 일과에 강제성이 없고, 아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 주도성, 아동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시간 활용의 자율성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래 “시간을 셋팅하면 자율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센터장 D의 이야기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 활동을 하더라도 활동 시간을 뺄뺄하게 정해놓으며 활동 속에서 아동의 자율성을 보장받기는 어렵다.

시간을 세팅하면 자율성이 생기지는 않아요. 활동을 애들 사이에 펼쳐 놓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들어오거든요. 아무리 애들이 좋아하는 활동이라도 이거 해야되 하면 거기서 저항이 생기면서 안하면 안 되요? 전 지금 하기 싫은데,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를 확 쏟고 거기서 분위기가 확 흐트러져요. 활동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펼쳐놓는 방식.. 그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저도 하고 싶어요 하면 받아주고, 그럼 거기서 교사들도 힘 빼지 않고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센터장 D)

그러나 대부분 프로그램, 활동 등을 하게 될 경우 운영 시간표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운영 중인 키움센터는 교과 학습은 아니지만, ‘놀면서 배우기 위해’ 문예체 활동, 실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키움센터에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아동 자율성, 결정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이후 놀이와 쉽 중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 (1) 프로그램 참여 결정, 아동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는가

아동최우선의 원칙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센터장들이

가장 먼저한 답이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를 아이들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가령, 센터장 A는 “아이들에게 뭐가 하고 싶은지 물어봐요”라는 응답을 가장 먼저 하였으며, 센터장 E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번 주에 이거 이거 할 건데 할 사람 표시해놔,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고 한다”는 응답을 가장 먼저 하였다. 센터장들은 프로그램 참여 신청 권한을 부모가 아닌, 아동들에게 우선적으로 주고 아동이 스스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동최우선 원칙 실현의 의미를 두고 있다.

저희 아이들에게 뭐가 하고 싶은지 물어봐요. 원래는 아이들이 적을 때는 주 3회, 4회 요리 활동이 많았어요. 너무 재미있어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1단계 되면서 칼림 바 수업을 하는데 그거 안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들은 책을 읽거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요. (센터장 A)

저희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번주에 이거 이거 할건데 할 사람 표시해놔.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당일날 꼭 할 것 같은데도 안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고 하고 그 친구들만 해요. 근데 또 그 주 안에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공해서 자유놀이 할 때 그 친구한테 제공을 하고. (센터장 E)

키움센터의 주된 일과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아동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동 주도, 아동 자율성 보장을 실현하는 큰 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센터장이 인식하는 것처럼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아동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 아동 중심의 센터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하는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동들에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어떤 방식으로 부여하는지, 참여할 프로그램과 활동 목록은 누가 제시하는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아동은 키움센터에서 해당 시간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FGI조사 결과,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아동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식, 아동들이 참여 여부를 결정한 이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방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아동에게 타 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 등에서 센터 간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아동에게 부여하더라도 그 전후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제한된 선택권만 보장될 수 있으며, ‘과정’으로서의 아동 참여권 보장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 ○ 프로그램 불참 결정 이후, 다른 활동에 대한 선택권 제한

먼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아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거나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다른 것을 하도록 설득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센터장 H의 키움센터는 활동 참여에 대해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게 책읽기까지는 허용하지만, 공놀이는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키움센터에서 기획했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센터장 I 또한 가능하다면 아동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싫으면 안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놀이를 하고 싶다고 하면, “공놀이를 하면 방해가 되니까 그 공놀이는 나중에 할 수 있어. 그거 말고 다른 것 할 수 있는 거 해라”라고 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보장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활동에 대한 선택권은 제한하는 것이 아동최우선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럼 그게 아동최우선의 원칙은 아니잖아요”라며, 아동최우선의 원칙과 맞지 않는 것임이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활동 참여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좋으며, 부모들은 활동을 더 많이 해달라는 요구를 한다며 센터장과 돌봄교사가 계획한 활동을 잘 이루어내는 것에 더욱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놀이를 할 때도 애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지만 활동하려고 하는데 어떤 애가 하기 싫다고 공놀이를 하고 있으면 그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애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아동최우선의 원칙은 아니잖아요. (연구자: 그래서 설득 안하고 활동에 참여 안시키고, 안하도록 하는 센터들도 많아요.) 저희는 센터 구조 상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산만해요. 통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조용히 책을 읽어, 책 읽는거까지는 허용할 게, 근데 아니요 나는 공놀이를 하고 싶어요. 이러면 곤란해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센터장 H)

저희는 가능하면 아동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프로그램 하다보면 나는 이거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까처럼 공놀이를 하고 싶다고 하면, 니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거는 괜찮아. 근데 여기서 공놀이를 하게 되면 방해가 되니까 그 공놀이는 나중에 몇 시에서 몇 시부터 할 수 있어. 그거 말고 다른거 할 수 있는거 해라. 이렇게 하면 다른거 하다가도 애들이 다 같이하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그럼 들어와서 하기도 하면서. (센터장 I)

아래 센터장 F의 이야기는 센터장이나 돌봄교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들을 설득하여, 또는 대부분이 친구들이 하나까 결국은 하기 싫었던 아동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이다. 위 센터장 I의 이야기에서도 아동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은 하지 못하게 하고 센터장이나 돌봄교사가 다른 것을 하도록 제안하는 경우, 다른 걸 하다가도 다 같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선생님 특기에 따라) 중국어랑 사자성어랑...근데 그 수업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선 뭔가 하나를 맡아서 외부강사도 못들어 오는데 자기 책임을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별로 재미없어 하는데. 기왕에 하는 거 끝까지 하시겠다고 끌고 가시는 건데.. 그게 좀 하기 싫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안 하게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실이 따로 없다고 했잖아요. 문제아동이 발생하는거죠. 선생님 재네는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시키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단계를 좀 낮춰서 쉽게 해서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자. 그랬는데 그 시간 피해서 오더라고요. 엄마하고 의논해서. 이런 게 문제인거죠. 하기 싫은데 다 같이 움직여야하는 공간 때문에 하게 되는거. 근데 하면서도 효과는 있었어요. 싫어요 하면서 또 따라는 해요. (센터장 F)

활동 참여에 대한 아동들에게 의견을 묻지만, 그 외 다른 활동, 놀이, 쉬 등에 대한 선택권은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아동 선택권 보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그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 ○ 공간의 제약으로 인한 다양한 활동 선택권 제한

유사한 맥락에서 아동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의 의미, 특히 한정된 공간 안에서 아동들의 개별성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아동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다른 활동, 놀이에 대한 선택권은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센터장들은 대부분 ‘분리된 공간이 없어서 주 프로그램에 방해되기 때문에’를 그 이유로 들었다.

분리된 공간이 없어서라고 하였지만, 과연 공간이 분리가 안되어서의 문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분리되지 않는 공간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놀이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아래 센터장 D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키움센터 공간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 동일한 시간에 모두 함께 실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실내외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 시간을 정하지 않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구분해서 쓰세요. 앞에 마당 있다고 했잖아요. 활동하는 애들 일부내보내고 일부는 실내에서 좀 하고, 한 시간으로 딱 정하지 말고, 활동시간은 오히려 나가 놀 수 있는 시간으로 구분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센터장 D)

## (2) 프로그램 참여 이상의 아동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프로그램, 활동 참여를 아동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 주도, 아동최우선의 원칙을 고민하고 있는 센터장들도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센터장 중에 아동 주도, 놀이와 쉽 중심의 운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상대적으로 잘 실현하고 있는 센터장은 C와 D이다. 센터장 C는 시작단계부터 놀잇감을 살 때부터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이에 대한 아동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컸다고 하였다. 주어진 공간과 환경에서 교사가 제시한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생활할 공간 구성에도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례이다.

시작단계에서부터 뭐가 필요한지 놀잇감 보드게임 하나도 제 임의대로 산 것이 없었거든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주변의 전문가 선생님들께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특히 프로그램 참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아이들이 직접 신청했거든요. ‘프로그램을 할 거야’하면 프로그램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센터장 C)

센터장 D는 ‘아동중심 운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루 일과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아이들한테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자율성이 생기지 않거든요”라며, 매일 놀이터를 나갈 때 센터 내 놀잇감 정리, 놀이터 나갈 준비, 교사 주도가 아닌 아이들끼리 놀이터 갈 시간 정하기 등 일상적인 일을 아이들 스스로 인식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저는 이게 아동중심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루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아이들한테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자율성이 생기지 않거든요. 선택권도 사실은 정해진 것의 선택권인지 선택권 자체가 결정된 것들을 선택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자율성이 선택권 자체와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구조 자체가 아이들이 여기 안에서 충분히 스스로 원하는 놀이를 하고, 환경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흐름을 중요시하는데, (중략) 하루 2시간 정도는 늘 나가서 놀다가 오는데 (중략) 이게 어른들 늘 해주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너희들이 나가는 거 가장 좋아하고 너희들이 노는 놀잇감인데 선생님이 챙겨주는건 아닌 것 같애. 너네가 스스로 챙겨야될 것 같애. 그리고 놀이터도 너희들이 알아서 나가야지 선생님들이 놀이터가자 정리하자 이야기하는 건... 아이들이 스스로 먼저 움직이게끔 이야기를 하고난 다음부터는 나가자 나가자 해서 시간이 되면 애들이 다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아이들이 해야 하는 일을 인식하고 챙길 수 있게끔 세팅하고 있고요. (센터장 D)

하루 일과의 구성을 아동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어떤 활동을 할지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그 활동을 시작하고 마무리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키움센터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아동 A는 시간표가 없는 것을 키움센터의 장점으로 꼽았다.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떤 활동의 시작과 마무리를 아동의 판단에 따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동들의 입장에서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것 또한 자신들이 하고 싶은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일 수 있다. 시간의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래의 아동 D의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하는 미술 활동보다 키움센터에서 하는 미술 활동이 더욱 좋다는 아동 D는 학교에는 미술 활동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정해진 만들기만 하고 끝나는데, 키움센터는 활동시간이 더 많고 여러 가지 미술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키움센터는) 시간표가 없으니까 더 좋아요. (아동 A)

저는 여기서(키움센터에서) 미술을 (하는게 더 좋아요) 학교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시간이 따로 있고 그런데 여기는 더 시간이 많고 그리고 또 학교 미술은 한 가지만 만들고 끝내는데 요기서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해서 좋았어요. (아동 D)

하루 일과를 아동이 구성할 수 있게 할 때 센터장과 돌봄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아래 센터장 D의 이야기처럼 센터장과 돌봄교사가 주도하지 말아야 하되, 적절한 개입과 지원은 필요하다. 이는 종사자의 전문성, 역량 강화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이들과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거기서 활동을 만들어 내야되거든요. 거기서 아이들의 욕구를 찾아서 활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 시간이 프로그램 없이 자유시간이 많을 때 활동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교사들하고 하는 활동도 그렇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교사가 그냥 나는 이게 전문성 있으니까 이렇게 할거야 라는게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아이와 관계 속에서 끌어내는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센터장 D)

### III

### 3) ‘놀이와 쉽’ 운영 실태

‘진짜’놀이를 위해서는 무계획성, 무목적성, 무강제성이 있어야 하며, 즐거운, 자유로움, 도전성·융통성, 자기주도성을 가져야한다(황옥경 외, 2014). 유엔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CRC) 31에서 말하는 놀이의 특성은 ‘놀이의 날’과 같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분절화된 것이 아니고, 성인에 의해 조직되고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놀이의 질이 성인에 의해 평가되지 않아야 한다(Laster & Russell, 2010; 한연오·신선영·이상화, 2019 재인용). 본 절에서 키움센터에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놀이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키움센터의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 놀이 중심 운영인가

### ○ 아동들에게는 ‘놀이’가 아닌, ‘또 다른 학습’

‘놀면서 배우는 공간’으로서 키움센터를 만들기 위해 센터장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FGI조사 결과, 키움센터의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과연 놀이 중심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되짚어 봐야하는 지점들이 도출되었다.

김명순(2019)은 어리면 어릴수록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면 좋다는 인식이 놀이에 대한 평가 절하를 낳았다고 본다. 체험이나 학습이 되는 놀이, 사고할 수 있는 놀이, 아동이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교훈이 포함된 교훈적 놀이는 놀이가 아니라고 보고, 교육과 훈육이 놀이로 잘못 포장된 것이 우리 사회의 놀이에 대한 오해라고 진단하였다(김명순, 2019). 키움센터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이 성인들의 시각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면 좋다는 목적 하에서 기획된 것은 아닌지, 아동 주도성과 자율성, 무목적성 등의 속성을 갖는 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아래 센터장 H의 이야기는 일부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센터장 H는 아이들한테 많은 활동을 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참여 아동 중 한명이 2시 30분까지 진행되는 활동을 10분 전에 끝내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 이유는 2시 30분에 학원을 가는데 학원을 가기 전 10분이라고 키움센터에서 놀다가고 싶기 때문이었다. 이는 아동의 시각에서 센터에서 이루어진 그 날을 활동은 놀이가 아님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후의 센터장 H의 이야기에서 센터에서 하는 활동이 아동의 입장에서는 ‘공부지 노는게 아닌 거’라는 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센터장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주고 싶고 부모들 또한 많이 하기를 원하지만, 아동들은 그걸 놀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다.

근데 저희는 제 욕심은 아이들한테 많은 활동을 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즘 무료로 강사분들이 와서 해주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걸 섭외해서 하면 우리 애 중에 하나가 2시 30분에 학원가야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2시30분까지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10분전에 끝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학원 가려고 그러나보다 했는데 10분은 자기가 여기서 놀아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놀고 안 갈순 없다는 거죠. 근데 어찌다보니 30분에 끝나서



바로 갔어요. 가면서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서 벗어났죠. 아이는 10분이라도 놀게 해달라고 했는데 마무리를 하시다보니, 개 혼자만 놀라고 할 순 없잖아요. (센터장 H)

(부모들은) 그런 것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만족도 조사를 하면,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선생님이 와서 뭘 하면 공부지 노는 게 아닌 거예요. 쓰고 막 이런 게 아닌 데도 자기가 마음대로 노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센터장 H)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RC) 일반논평 17(UN CRC, 2013; 한연오 외, 2019 재인용)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실현을 위한 해결 과제 중 하나로 과도하게 체계화되고 계획된 일정을 꼽고 있다. 과도하게 체계화되고 계획된 일정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은 놀이가 아니다.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놀이와 쉽을 통한 돌봄서비스 보장이라는 키움센터의 운영 방향과 맞는 것인지, 특히 아이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활동이 놀이와 쉽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 성인(강사) 기획, 성인주도 프로그램: ‘아동 주도의 놀이가 아님’

센터장 F는 놀이 중심의 운영의 예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루 ‘한시간’, ‘사전에 교사들이 규칙을 정한자유 활동이 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틀은 짜놨지만”라는 말과 “아이들이 원하는 걸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표현이 한 문장에 배치될 수 있는 이야기일까, 고민이 필요하다.

데이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달력에다가 어떤 어떤 데이를 정하는거예요. 자치회처럼, 어제는 게임데이가 있었어요. 자기 스마트폰이라던지 기계를 다 갖고와서, 그 날은 한 시간, 사전에 저희가 규칙을 다 정해요. 어느 정도 틀은 짜 놔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걸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놨어요. (센터장 F)

아래 센터장 H의 이야기는 PBL활동에서도 교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PBL활동의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교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끌고 가는 일례를 이야기해주었다. 교사의 역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활동이여도 아동 주도, 놀이 중심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동 주도의 활동을 꾸러가기 위해 교사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사 주도의 활동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사의 적절한 역할을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저희는 그게 되도록 PBL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은 교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죠. (연구자: 어떤 지점에서 교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어요?) 애들이 그냥 (낙엽과 솔방울 갖고) 구겨서 놓고 싶어요. 가을은 잠 많이 자고, 그냥 놓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건 뭐 안 나타 나잖아. 많이 먹으면 살만 찌고 그럼 너 살찐 사진 찍어서 붙여놓을까? 그랬어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많은 애들이 그거 좋다 그랬어요. 먹고 쉬고, 근데 아 그건 좀 그럴 꺼 같은데? 저희가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의견을 내는 거예요 교사들이, 게시판에 붙여주고 설명을 쓰게 하면서 좀 부족하면 그 단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단어가 들어가면 좀 멋있어 지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하고 나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센터장 H)

센터장 C의 키움센터는 2018년 6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운영 시설이자, 지역 내에서는 2016년부터 돌봄 시설로 운영되어 왔던 곳이다. 지역에서 돌봄 시설로 운영될 때부터 쉼, 놀이에 집중을 해왔었고, 그래서 키움센터로 개소할 때도 일부러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았다고 한다.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운영자, 대부분 어른들의 주도 하에 만들어지는 것이며, 미리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해왔던 센터장 F 또한 코로나로 프로그램을 한달 동안 운영하지 않자 자율적인 놀이들이 나왔다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센터장 F는 프로그램을 좀 줄였다고 한다. 이 역시 활동은 아동의 입장에서 진정한 놀이가 아닐 수 있음을, 아동들의 자율적 놀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역 안에서 돌봄을 할 때부터 저희는 쉼, 놀이에 집중을 했었어요. 저희가 개소할 때는 저는 프로그램을 일부러 돌리지 않았었어요. 아이들 욕구가 생기고 아이들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하고 했었고. (중략) 그런 색깔들을 그런 틀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

고 있고, (센터장 C)

코로나 그때 2,5 단계할 때 12명 올 때 선생님들한테 프로그램 하지 말자, 선생님도 스트레칭고 모이고 같이 앉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안 해보고 지내보자 해서 한 달을 프로그램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율적인 놀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초밥집을 만들고, 아이들이 할 게 없으면 놀이를 만들어요. 오히려 고민인거죠. 지금 선생님들한테 프로그램을 좀 즐기고, (센터장 F)

## (2) 협소한 공간: 놀이와 쉽 중심 운영을 위한 공간 재구성 필요

### ○ 공간 확대의 필요성

놀이와 쉽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넓어야 한다. 공간 면적은 아동들에게도 중요하다. 초등돌봄교실보다 키움센터가 좋다고 한 아동 D와 H는 그 이유 중 하나로 ‘키움센터가 넓다’는 것을 꼽았다.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에 따르면 보통교실의 기준면적은 66㎡이상(학생수가 학급당 25인 이하인 경우에는 45㎡이상)으로 한다. 앞의 II장 분석 결과, 키움센터는 최소 면적이 66㎡이상이며, 이 경우 정원을 최소 15~20명까지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교실 면적보다 면적 기준이 크다.

(연구자: 돌봄교실이 좋아요 키움센터가 좋아요?) 키움센터요. (연구자: 왜요?) (아동 G: 차원이 달라요.) 왜냐면 장난감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완전 넓고 거기다 다락방도 있고 거기다 책도 엄청 많고 어 또 뭐가 있지? 그리고 또 밥도 되게 맛있고 간식도 나오잖아요. (아동 G)

학교 교실 면적보다는 넓고 일부 아동들은 키움센터가 넓어서 좋다고 하였지만, 키움센터 면적이 초등연령 아동들이 놀이를 하기에 충분히 넓은 것은 아니다.

182㎡에 30명 정원 시설로 센터가 넓어 체육활동까지 가능하다는 센터장 A의 키움센터를 제외하고는 FGI조사에서 대부분의 센터장은 공간이 협소하고, 공간 구분이 안되어 있어 신체활동을 하고 아동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센터가 넓어서 체육활동 다 가능해요. 센터에서 다 진행을 하고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살아  
요. (센터장 A)

정원 20명이고 주방과 교사실을 제외하면 22~23평정도 된다는 센터장 E는 “공간이  
되게 협소하다”며 “아이들이 15명만 와도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  
이라고 하였다. 센터장 D 또한 85㎡라고 되어있지만 실제 면적은 66㎡정도 인 것  
같다며, “되게 좁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공간이 원룸처럼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공간이 없어 프로그램 진행에 불편함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센터장 D의 키움센터는  
연구진이 직접 방문한 결과, 주방이나 교사실도 따로 없이 원룸 공감 한켠에 책상과  
에어프라이어를 놓고 주방과 교사실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솔직히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가림판해놓고 간식을 먹다보면 자리가 엄청 부족하거든요.  
애들하고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코로나 전에는 12명 정도 왔었는데, 코로나 격상되면서 아  
이들이 6~7명 정도 오다가 완화되면서 온라인수업 하고 하면서 15명오면서 약간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었어요. 다행히 복지관 안에 있다보니까 강당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동적인 활동은 그 곳에서  
할 수 있고, 그래도 선생님들 생각에는 좀 더 여유롭게 공간을 사용하면 보시기에도 활동할  
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 하시더라고요. (센터장 E)

저희도 공간이 85제곱미터라고 이야기하지만 66은 되려나 모르겠어요. 사실 되게 좁고, 공  
간이 원룸처럼 되어 있어서 교사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주방이 따로 있지도 않아서,  
아쉬운 건 프로그램 공간이 없어서 프로그램 진행에 불편함이 있죠. (센터장 D)

연구에 참여한 일부 양육자들 또한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을 가장 큰 개선점으로  
꼽았다. 양육자 D는 놀이 중심 운영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공간 자체가 아이들이  
놀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양육자 E 비슷한 이유에서  
아이들의 쾌적한 공간에서 지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양육자 E는 키움센터 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자녀의 키움센터 등원  
일수를 줄였다고 하였다. 더불어 놀이도 학습도하기 어려운 공간이라고도 하였다.  
양육자 D와 E는 공간 개선 특히 면적 개선을 키움센터의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기도 하였다.

지역 내 키움센터 설치를 자치구에 직접 요구하고, 설치 장소까지 직접 알아봤다는 양육자 H 또한 키움센터의 장소가 협소한 것이 아쉬웠다고 하였다. 놀이와 쉼 중심으로 이루어지려면 공간 확보가 중요하는 점도 언급하였다.

교사대비 인원이 학교보다는 교사와 아이 인원 비율이 좋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다닐 때 보다 아이들이 몸집이 커졌는데 면적대비 아이수가..... 이게 너무 좁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83제곱미터라고 해도 조리실 빼고, 계단 빼고 뭐 하다보니까 공간 자체가 아이들이 놀기에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양육자 D)

그런 이유로(공간이 협소해서) 이용비율을 줄였어요. (중략) (여름) 방학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 아이들이 같이 뒹굴고 있어요. 그걸 보면 보내기가 힘들죠. 그렇기도 하고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에 함께 지내지 못한다는 우려가 굉장히 컸어요. 다른 키움센터를 이용해 보지 못해서 비교대상은 없지만 일단 저희 키움센터 안에서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커졌고 활동양도 훨씬 많은데 그 안에서 지내기 힘들었어요. 늘 땀띠를 달고 살 정도였어요. 아이들은 모아놓으면 그 시너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중략) 놀이도 학습도 하기 어려운 공간이에요. (양육자 E)

장소가 좀 협소했어요. 제가 생각한 것 정도로 놀이와 쉼과 여러 가지 학습하고 싶은 그런 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려면 그런게 확보가 되어 되는데 그런건 협소하게 결정이 돼서 아쉬웠죠. (양육자 H)

### ○ 놀이, 쉼 중심 운영에 적합한 공간 구성 필요성

가장 먼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실외 놀이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센터장 G의 키움센터는 복지관 내부에 있어 실내 공간 활용은 충분하나, 실외 놀이공간이 없다고 하였다. 인근 아파트 놀이터를 활용했는데 민원이 들어와 더 이상 아파트 놀이터는 이용하지 못하고, 제한적이지만 건물 내 옥상정원을 활용하여 실외 놀이를 하고 있다. 바깥놀이가 중요한 만큼, 개별 키움센터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차원에서 키움센터와 인근 놀이터를 연계하는 등, 실외 놀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뛰어놀게끔 외부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그이후로는 못하게 됐고, 4층에 옥상정원이 있어서 거기서 뛰어 놀기도 하고. (센터장 G)

한편, 양육자 H는 내부 공간 구성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초등연령 아동들이 놀이와 쉼 중심으로 창의적으로 클 수 있는 공간 구성으로는 아쉽다고 하였다. 어린이집과 같이 정형화된 공간 느낌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키움센터 홍보하는 영상이나 이런데 나오는 거랑 실제 제가 아이를 보내는 공간은 되게 달라요. (중략) 분명히 전문가가 이렇게 좁아도 이걸 놀이와 쉼? 이런 것들을 같이 되는 공간으로 하려면 굳이 뭐 교구장 갖다 놓고 책장 갖다 놓고 바닥은 마루로 해놓고? 그렇게 정도로.. 어린이집 교실 꾸미듯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더 큰 아이들이고 공간에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클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되게 아쉬워요. (중략) 저는 사실 놀이터는 없어도 상관은 없고, 그런 것 보다는 너무 정형화된 게 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디 가서 부모님 오실 때까지 있다가 와 하는 그런 돌봄의 공간으로서의 정형이 전혀 깨지지 않았어요. (양육자 H)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입지 선정부터 내외부 공간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상세히 나왔지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적/동적 활동 분리, 교사실 별도 조성, 전용 화장실 조성, 별도의 수납공간 조성 등이 일반형 키움센터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서울특별시, 2020). 협소한 키움센터 면적 구조 상, 이를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놀이 중심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 구성 요건은 권장 사항보다는 필수 사항으로 하고, 이를 필수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

####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공간 문제 해결

현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사회 내 인근 시설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센터장 D, E의 키움센터처럼 공공기관 내 위치한 경우나 센터장 G, I와 같이

위탁기관의 건물에 위치한 경우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센터장 D는 동일 건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공간의 협소함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하였다. 센터장 G의 키움센터는 복지관에서 사업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복지관 건물에 키움센터가 있다. 복지관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 공간 구성과 활용에 용이하다고 하였다.

그래도 다행인 건 지역아동센터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식당도 같이 이용하다가 요즘은 분리가 됐는데, 되게 넓은 식당 공간도 빌려 쓸 수 있고 프로그램 공간도 올라가서 쓸 수 있어요. 비는 시간에, 그게 자연스럽게 수시로 이야기하면서 쓰고 하니깐 공간의 협소함은 그렇게 해결되고 있어요. (센터장 D)

교실이 구분이 되어 있고, 저희는 복지관 내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체육관에서 체육한다던가 아이들 놀 때는 그런 공간들 활용하고, 놀이할 때는 놀이교실,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3d팬 수업을 하게 되면 그 돌봄교실에서 하기 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실을 예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보니 공간의 구성이나 활용은 굉장히 용이하죠. (센터장 G)

이는 동일한 건물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경우 공간 활용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더 확장한다면 동일 건물이 아니더라도 지역 내 인근 건물·공간과 연계하면 얼마든지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 (3) 학습지원과 놀이와 쉼 중심 운영, 양립가능한가

학습은 놀이가 아니다.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놀이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습 지도를 하는 키움센터가 적지 않았다. 키움센터의 학습지원 실태를 살펴보고, 학습지원이 키움센터가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역할인지, 아니라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지원 역할을 어떻게 축소, 제한해 나가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 ○ 온라인 수업 지원, 키움센터의 역할로 적절한가

온라인 수업 지원은 연구에 참여한 센터장 중 한 곳을 제외하고 8개의 키움센터에서 모두 하고 있었다. 온라인 수업 지원을 안하고 있는 센터장 A는 온라인 학습지원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 지원 시 돌봄교사들의 소진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온라인 수업 지원을 꼭 센터에서 해야 하는 경우에만 보내라고 부모들에게 공지하고, 온라인 수업 지원을 안해왔다. 그러나 이는 해당 지역이 키움센터가 아닌 학교, 가정 등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저희는 오전에는 따로 원래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았었어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돌봄이랑 이중으로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기자재나 이런 것도 없고 그렇게 온라인 수업을 온전히 맡았을 때는 선생님들의 번 아웃이 빨리 예상이 돼서 처음부터 '온라인수업을 꼭 저희한테 해야 되는 친구들을 보내셔라 그게 아니면 점심시간 11시 반, 12시 사이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보냈고 대신 저희는 긴급 돌봄이라는 의미가 없었고 모든 아이들이 다 왔었어요. (센터장 A)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 지원은 온라인 수업으로 그치지 않고, 센터장의 운영 역량에 따라 온라인 수업 외 학습지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센터장 H의 이야기는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아동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안해도 되는 아동들이 학습지를 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역시 키움센터에서 온라인 수업 지원을 하는 상황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집에서 일찍부터 하고 온 고학년들은.. 줌 그 시간이 선생님하고 대면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유롭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집에서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애들은 온라인 수업하느라 조용히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건 좀 지켜주자고 얘기 했거든요. 다른 애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떠들 순 없다. 최소한의 예의다. 그럼 그 시간에 오면 뭘 할까 그러면 제가 책을 읽던지 학습지를 가져와서 풀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엄마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학습지를 다 사주셨어요. 그래서 한 두 장, 원하지 않으면 한 장 이렇게 풀리고 있어요. (센터장 H)



아동들은 키움센터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연구에 참여한 거의 모든 아동들이 키움센터가 좋다고 하였고 그 이유를 놀이로 꼽았던 것과는 달리 아동 H는 유일하게 키움센터가 좋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그 이유를 ‘맨날 공부만 하는 것’으로 꼽았다. 맨날 공부만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아동 H의 양육자나 아동 H가 이용하는 키움센터의 종사자들은 의아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전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오후 4시까지 놀다가 오후 4시부터 한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데, 4시부터 한다고 한 공부 또한 개인별 숙제 아니면 책읽기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움센터에 있는 절반 정도의 시간을 온라인 수업과 그 외 학습을 하는 것으로 보내는 것, 아동의 입장에서는 매일 공부만 하는 것이다. 아동 I 또한 키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 지원에 대해 “공부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키움센터 이용의 아쉬움 점을 꼽았다. 키움센터에서 공부만 하기 때문에 키움센터 오는 것이 좋지 않다는 아동이 있다는 것, 온라인 수업 지원, 공부를 키움센터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동이 있다는 것, 키움센터의 운영원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구자: OO(이)는요? 키움센터에 오는거 좋아요?) 아니오 (연구자: 왜 안좋아요?) 맨날 공부만 해요. 일단은 와서 이학습 컴퓨터를 하고 4시까지 밥먹고 놀다가 4시부터 공부 1시간동안 해요. (중략) 온라인 수업하고나서 4시 되면 개인별 숙제 아니면 숙제 없으면 책이나 그런거 읽기 해요. (아동 H)

(연구자: 키움센터 이용하면서 아쉬운 점이나 안 좋은 점 있어요?) 공부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아동 I)

현재 온라인 수업 지원 및 오전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공고하게 마련되지 있지 못하다. 아동은 지역 내 돌봄기관에서 그 공백을 책임질 수 있으며, 그 기관 중 하나가 키움센터 일 수 있다. 그러나 교과학습 지도가 학교 교유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아동 또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지원을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키움센터는 그 외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와 쉽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 양육자의 학습지원 요구, 불가피한가: 온라인 수업 지원 상황에서의 놀이와  
쉽 중심 운영 가능성 엿보기

키움센터에 학습지원을 요구하는 양육자들은 키움센터 운영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따라 양육자들의 학습지원 요구 때문에 학습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일부 센터장들 또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이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수업 지원과 함께 학습지원에 대한 양육자의 요구가 더욱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 지원을 키움센터의 역할로 볼 것인지, 온라인 수업 지원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숙제 지도와 추가 학습 지도 또한 키움센터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나아가 학습지원에 대한 양육자의 요구 수용을 지역 내 돌봄수요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허용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FGI조사 결과, 온라인 수업 지원은 하지 않지만 숙제 및 학습 지도는 하고 있는 사례(센터장 A), 온라인 수업 지원은 하지만 숙제 지도 및 학습지원을 센터의 공식 일정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사례(센터장 C, D)가 있었다. 온라인 수업 지원과 학습지원이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습지원에 대한 양육자의 요구 또한 모두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센터장은 숙제 지도, 학습지 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양육자의 요구 때문이라고 하였다. ‘저희 학습은 진행하지 않습니다’라고 부모 상담 시 이야기를 하고, 온라인 수업 지원 또한 안해왔다는 센터장 A 또한 숙제와 소량의 학습지 지도는 하고, 그 이유는 부모 요구를 어느 정도 만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경우이기도 하지만 센터장 H 또한 ‘학부모들은 학습지 풀기를 원한다며, 운영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그게 나왔다고 하였다.

대신 숙제는 꼭 해요. 숙제랑 부모요구는 어느 정도 만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학습 지명) 등등 (중략) 봐주기는 해요. (센터장 A)

학습지 풀기를 원하세요. 운영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그게 나왔어요. (중략) 아이들의 기초학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수학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너희가 보충해줘야 하지 않냐. 적어도 기본적으로 기초학습 중에서 수학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학원을 보내야하지 않겠냐. (센터장 H)

이와는 달리 센터장 C, D는 FGI조사에서 숙제 지도, 학습 지도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놀이, 쉬 중심 운영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확고했던 센터장으로서 오전에 온라인 수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를 오후 숙제나 학습지원까지 이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았다. 온라인 수업 지원하더라도 학습지원은 하지 않고 놀이와 쉬 중심의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불어 센터 종사자의 인식과 역량이 놀이와 쉬 중심의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드러내는 사례이다.

#### ○ 학습지원으로 인한 놀이와 쉬 중심 운영 장애

FGI 및 심층면접 조사 결과, 학습지원으로 인해 아동 주도, 놀이와 쉬 중심의 운영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양육자의 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을 이유로 키움센터가 학습지원을 계속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 ▶ 학습지원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놀이와 쉬 중심 운영 목표에 대한 종사자 혼란

온라인 개학 장기화로 키움센터는 종일 돌봄을 수행하며, 학교의 역할이었던 학습 지도까지 해야 하는 상황 또한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곧 종사자의 소진으로 이어진다. 종사자의 업무 과중을 양육자들 또한 느끼고 있었다. 양육자 D와 E는 작년 상황에 비하면 현재 키움센터가 온라인 수업 지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아쉽다고 하였다. 방과후 돌봄을 하는 기관이 종일 운영되고 있는 상황, 온라인 수업 지원에 급식 업무까지 키움센터가 하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종사자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요구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아쉬워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그 안에서 어쨌든 저희는 학교를 가지 않았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에 더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생님들이 점심까지 챙겨야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양육자 D: 그렇지) 또 저희가 지금은 도시락 배달을 받아먹지만 전에는(양육자 D: 그렇지) 그 안에서 식사를 직접 조리하시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뭐가 요구할 수 있는 게 힘들었죠. (양육자 D: 맞아요.) 죄송스럽고 (양육자 E)

거기다가 선생님들은 지금 일부분의 온라인 학습도 해 주시거든요. 전 과목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 원래는 1시부터 운영이 돼야하는 곳이 9시, 8시 반부터 운영이 되고 있으니, 사실 근무시간도 그 안에서 저율이 되지만, 학습도 일부분만 봐주시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의 업무도 사실 그쪽에 프로젝트가 완전히 없어지고, 학습과 급식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책임져 주시다 보니까 사실 어떤 걸 요구하기가 저희도 사실 어려워요. (양육자 D)

그리고 서울시 「포스트 코로나 초등돌봄 정책 방향 1차 포럼, 그룹 토의」 결과에 따르면, 학습지원을 하는 상황은 키움센터 운영원칙인 놀이와 쉽 중심의 돌봄 제공에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당시 그룹 토의에 참여했던 한 키움센터 센터장은 아래와 같이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색깔이 점점 섞여지는 것이 위험하다고 본다. 키움센터의 색깔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온라인 개학 장기화로 부모들의 학습지원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학습지원과 놀이와 쉽 중심 운영원칙 구현 간의 현장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 저희의 몫이 되고 있고요. (중략) 지역아동센터는 학습 케어를 하는 곳이고 저희는 만들어진 취지가 놀이와 쉽이에요. 키움은 색깔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요. 지금 사실 긴급돌봄이라는 상황 안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색깔이 점점 섞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저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키움의 색을 지켜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중략) 아이들이 항상 회의를 해서 정말 계속 완벽한 PBL은 아니더라도 그쪽으로 가기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방학이 끝나면서 2학기에도 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이 상황이 되자마자 부모님들이 계속 전화로 요청하는 것이 학습이에요. 왜냐하면 기초학습이 안 되니까요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초등돌봄 정책 방향 2차 포럼 자료집(김송이, 2020) 발췌)

센터장 G는 “아동최우선의 원칙에 대한 인지하는 것과 현장에서의 실천과정이 아주 일치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하며, 센터장과 돌봄교사들이 시간표를 구성하는 것, 학부모와 아동의 요구 간 조율하는 과정을 그 예로 들었다. 특히 구체적인 사례로 ‘아이들은 좀 학습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걸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들었다. 센터장 G의 키움센터는 오전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걸로 시간을 편성하고 모든 아동들이 온라인 수업만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숙제지도를 하는 경우 아래 센터장 F의 사례처럼 숙제를 안해도 되는 일부 아동들의 놀이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학습지원에 대한 양육자의 요구와 아동의 요구를 조율하는 과정, 온라인 수업 지원을 하는 것이 아동 중심, 놀이와 쉽 중심의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근데 인지하는 것과 현장에서의 실천과정이 아주 일치하지는 못하는 것 같긴 해요. (연구자: 나의 인식과 현장의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때 그런 걸 느끼세요?) 저희가 활동을 하다보면 저희가 시간표를 구성해서 해야 하고, 학부모님들이 요구를 하거나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돌봄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상황... 아이들은 좀 학습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하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아이들 생각해서는 자기들의 권리나 누릴 수 있는걸 하기를 원하지만 저희가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왔으니까 공부해 해야 돼. 지금 학교 수업시간이니까 (센터장 G)

근데 어떤 아이는 숙제를 안 해도 되고, 근데 이게 불만인거죠. 해야 하는 아이가 있는데 옆에서 뛰고 같이 놀자고.. 실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애도 불만 다른 애들도 불만 서로 불만인거죠. 엄마들의 욕구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숙제는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자율권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건 아니겠다 싶어서 한 시간 틀을 만들었어요. 숙제 시간은 모든 아이들이 책을 보더라도, 학교에서는 독서 30분씩 하게 되어있잖아요. 30분 독서를 하더라도 다 같이 앉아서 숙제를 하든, 그 시간을 만들어놨는데 자리를 잡더라고요. (센터장 F)

### ▶ 아이들은 원하지 않는 학습: “적정학습량, 아이에게 동의를 얻은 분량의 학습지원”, 그 역설

숙제나 학습 지도를 하면서 아동의 동의를 얻어가며, 아동의 요구를 수용하며 하는 과정을 통해 센터장들은 숙제 지도와 학습 지도에 대한 불편함을 일부 상쇄해가는 듯 보였다. 구체적으로 센터장 A는 양을 조정해서 아동이 지겨워하지 않을 정도로 숙제와 학습지를 봐준다고 하였다. 센터장 E 또한 ‘아이한테 동의를 얻고 엄마와 아이가 하기로 약속한 만큼 숙제와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대신 숙제는 꼭 해요. 숙제량 부모요구는 어느 정도 만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학습지명) 등등 양을 조절해서 지겨워하지 않을 정도의 양만으로 봐주는 해요. 매일 하는 것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숙제는 봐주시는 해요.(센터장 A)

상담할 때도 숙제지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상담할 때 아이한테 동의를 얻으면, 저희는 학습을 봐 드린다고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을 키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오시는 분들은 심이랑 놀이가 위주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동의하시고 엄마가 아이랑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학습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센터장 E)

그러나 소량의 숙제와 학습지 지도는 놀이와 쉽 중심 운영원칙과 배치되지 않는 것인가? 아동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학습, 지켜워하지 않을 정도의 학습량이라면 아동최우선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봐야 하는가? FGI조사 결과, 분량에 상관없이 키움센터에서 학습지원을 원하는 아동들은 아무도 없었으며, 센터장들 또한 학습지원을 아동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동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학습이 얼마나 역설적 표현인지를 드러내주는 결과이다.

바로 키움센터의 학습지원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학습지원을 아이들이 원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위 센터장 G의 사례처럼 아동들이 원하지 않는 학습을 강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래 센터장 I 또한 학습지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돌봄교사와 아동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운영자로서 키움센터의 운영원칙, 센터장의 가치, 아동들의 가치 간 충돌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어쩔 때는 나의 가치와 아이들의 가치는 또 다르고, 감정도 다르잖아요. (중략) 부모님이 학습지를 이만큼 해야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해야 돼요 하다가 선생님이 안 나가떨어지거든.. 그러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화장실 가야 돼요 하는 식으로. 그럴 때는 좀 아이한테 여유를 줘요. 이게 너무 하기 싫구나 하면 맞아요. 그럼 이걸 몇 장을 해야 하는데 학원 갈 시간은 언제야. 그럼 해요. 근데 하기 싫으니까. 특히 엄마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드게임을 하고 싶은데.. 눈에 그게 아른거리니까 안 되는 거죠. (중략)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센터장 I)

아동들이 학습을 원하지 않는다면, 키움센터에서 학습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동최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다. 학교는 학습지도가 학교 고유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학습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설득하여 학습지도를 잘 하는 것이 학교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키움센터는 운영 목표가 학습은 지양하고 놀면서 배우는 공간으로 아동 중심, 놀이와 쉽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키움센터의 운영 방향을 놀이와 쉽 중심으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사교육과 학습으로 아동의 놀이와 여가시간이 매우 부족했다는 진단 때문이었다. 이는 학습지원에 대한 양육자의 요구가 있고, 현 온라인 개학과 같은 학습지원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키움센터가 학습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 ▶ 수업 중심의 공간 구성: 놀이공간 방해

센터장 B와 I의 키움센터는 온라인 수업 지원에 적절하게 센터 공간을 재배치한 사례이다. 두 센터 모두 활동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 수업 지원을 위해 활동실에 1인용 책상을 배치했다. 놀이 중심 운영을 위해서는 놀이에 적합한 공간 구성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책상, 교구장 등이 없는 순수놀이공간 구성이 중요하다. 온라인 수업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키움센터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구성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놀이 중심 운영이라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중요한 운영원칙이 오히려 방해를 받는다면, 온라인 수업 지원을 키움센터에서 계속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1, 2학년 수업을 할 수 있게, 3, 4학년 할 수 있게 책상을 해 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12시까지 식사 엄마표 도시락을 먹고 (센터장 B)

좀 수업을 해서 저희가 넓지만.. 활동실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모래놀이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근데 좀 수업을 하면 아이와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하는거라 공간이 안 좋아요, 저희는 요즘 칸막이를 해도 소용이 없고 해서 아예 창문이나 벽 쪽으로 책상을 따로 해놓고, 1인당 하계끔, 거기가 모자라면 늦게 오는 아이들은 좌식으로 구석에서 하거든요. (센터장 I)

온라인 수업 지원에 적절하게 책장을 배치한 공간 구성에 대해 양육자 H는 “교실처럼 생긴”, “교습소처럼 생긴” 공간이라고 표현하였다. 교실처럼 생긴 공간과

교구장과 책장이 있는 마루식 공간, 놀이와 쉽 중심 운영과는 거리가 있음을 양육자 H 또한 느끼고 있다.

뭐든지 이 안에서 자유로운 느낌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또 온라인 학습도 약간 도와주는 것도 병행하시다 보니까 책상이 있고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교실처럼 생긴? 교습소처럼 생긴 한 공간과 딱 어린이집 교실처럼 생긴 교구장과 책장이 있는 마루식으로 된 거기와, 좁다보니까 거기 사이를 선생님들 책상이 한 켠에 있으면서 사무도 좀 보시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육자 H)

온라인 수업 지원은 공간 구성의 변화를 야기하기도 하고, 이는 곧 제한된 공간 내에서 놀이 공간을 줄이거나 놀이에 적합하지 않게 공간을 재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역시 키움센터의 온라인 수업 지원 역할 수행에 대해 재고가 필요한 이유이다.

#### (4) 놀이와 쉽 중심 운영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 ○ 아동 중심, 놀이와 쉽 중심의 운영 가치에 대한 양육자 인식 개선 노력 필요

키움센터 운영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것에 대해 부모들과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센터장 C는 처음 자리 잡을 때 아동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모와의 갈등을 겪었다. 센터의 운영 방향과 맞지 않는 부모들은 퇴소하고, 센터의 운영 방향과 가치관이 남는 부모들이 남게 되면서, 놀이와 쉽 중심의 운영, 아동 중심의 운영이 “자리를 잡았다”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자리 잡을 때 사실 그 부분이 부모들과 갈등이 되기도 했었어요. 너무 아동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특히 프로그램 참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아이들이 직접 신청했거든요. (중략) 1, 2학년 아이들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애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하느냐’ 라고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애가 다른 아이들은 즐거워서 하는데 하기 싫은데 엄마 의지 때문에 억지로 한다고 하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방해가 될 것이고 아이도 재미없어한다. 정말 시키고 싶으면 아이를 집에서 설득을 시켜서 보내시라고..... 아이를 설득을 시켜서 설득돼서 와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모님들은 저희 센터하고 성향이 맞지



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은 퇴소 하셨어요. 퇴소하셨고 해를 거듭하면서 저희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남게 됐고 지금도 다 완전히 가치관을... 이제 필요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안에서 그냥 안전한곳에서 있다 이 정도만 바라는 부모님들은 사교육 비율이 높으신 분들이고 그 외의 분들은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한다고 하면 학원도 다 빼주세요. (센터장 C)

센터장 C가 일부 부모들과의 갈등, 센터의 운영방향과 가치관의 맞지 않는 부모들의 퇴소 등의 과정을 거치며, 아동 중심 놀이중심 운영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용자의 요구라고 수용하기보다는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이나 퇴소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에 동의하는 이용자들이 이용하게 되는 것, 이를 통해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원칙을 더욱 내실 있게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센터장 A는 부모님 상담에서 학습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고 하였다. 센터장 B 또한 초기 상담할 때 반드시 아동과 부모가 함께 오도록 하고, 아이와 합의가 돼서 하는 분량만큼만 학습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한다고 하였다. 초기 상담 시 운영원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양육자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 또한 키움센터 운영원칙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단, 초기 상담 시 키움센터 운영원칙에 대한 양육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센터장과 돌봄교사가 키움센터 운영원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부모님 상담에서 '저희 학습은 진행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아이들도 저희 기관을 '노는 곳, 쉬는 곳, 편한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센터장 A)

저희 초기 상담할 때 엄마만 상담은 노... 아이와 함께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제일 먼저 키움에 아동 최우선의 놀이와 쉼이 중요하지 않고 돌봄 기관이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학습 봐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송파이기도 하고 가락동이기도 해서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학원도 많이 가서, '아이가 하는 학업이 분량이 차고 넘치면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단 아이와 합의가 돼서 하는 분량만큼은 케어 하겠습니다.' 저희 주 활동시간 앞뒤로 하고요. '이거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이에게 스트레스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요. (센터장 B)

### ○ 키움센터의 학습지원 기능 최소화 및 제한

센터장 A는 고학년 중 학습 부진이 발생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로 연계하였다고 하였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놀이와 쉽 중심의 운영이라고 한다면, 학습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등 학습지원을 함께하는 곳으로 연계하여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 이것이 키움센터의 놀이와 쉽 중심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용아동들의 학습 결손이나 학습 부진을 염려하여 키움센터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지금 고학년이 올라가서 학습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 연계해서 보내고요. (중략) 5학년이랑은 다 (지역아동센터로) 보냈거든요. 그 이상(5학년 이상 아동) 있어도 사실 상관없는데요. 그 아이가 북한이탈주민 자녀여서 학습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보냈어요. 5학년 학습을 메꿔 주기에는 저희가 무리여서 (센터장 A)

나아가 교과학습은 학교 고유의 역할인 바, 교과학습은 학교의 역할로 명확히 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온라인 개학을 하고 돌봄과 온라인 수업 지원 공백이 발생하는 아동들을 가정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 시간 중에는 나홀로 아동들은 학교 체계에서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외 추가적인 돌봄 지원을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내 돌봄기관이 담당하는 체계가 공고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 ○ 실외 놀이 확대

놀이 중심 운영에서 실외놀이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센터장 C의 키움센터는 실외놀이 활동을 많이 한다. 이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연구에 참여한 이용아동 A, B, C는 놀 수 있는 것, 특히 밖에서 놀 수 있는 것을 키움센터가 좋은 점으로 꼽았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야외활동 안하지만 1단계에서는 해요. 그리고 야외활동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다 동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만 없으면 상시로 매일 저희 옆에 북 서울 꿈의 숲 걸어서 10분정도, 저희는 걸어서 20분 거리 개천도

가요. 걸어서 10분은 초등은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걸어서 1시간 정도는 걸거든요. 왕복으로 그 정도는 초등학생은 잘 걸을 수 있는..... 저희는 산도 가고 그러거든요. (센터장 C)

센터장 D의 키움센터 또한 매일 2시간씩 놀이터를 간다. 실외에서의 신체놀이가 가장 부족한 것이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센터장 F의 키움센터 또한 마당이 있어 거의 매일 실외놀이를 한다. 이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아동 G, H, I는 모두 마당에서 노는 것을 가장 좋아하였다.

오전에는 온라인수업 했었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학교를 안 갈 때는 놀이터를 갔었거든요. 매일 2시간씩. 요즘 애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신체놀이잖아요. 학교가면 더 그렇고. 하루 종일 학교에 앉아 있다가 끝나면 학원을 돌잖아요. 그래서 신체놀이가 가장 필요하고 또 아이들도 가장 원하고. 하루 2시간 정도는 늘 나가서 놀다가 오는데 나갈 때도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반응이 좋고 부모님들도 크게 인식이 자리 잡혀 있어요. 여기 가면 놀이터를 매일 나간다. 이것 때문에 애들 학원을 정리하고 보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센터장 D)

마당이 있어요 마당에서도 잘 뛰어 놀아요 한 시간씩은. 피구도 하고. 안전한 환경은 아니지만 안전하다고 100프로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지키면서.. 그 시간이 애들한테는 너무 좋은거죠. 밖에서 한 시간씩 놀 수 있는거죠. 30도 폭염주의보나 눈오고 비오는 날 빼고는 거의 나가요. 밥 먹고 한 시간씩은 나가는데 피구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인데 이런거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 아까 관찰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 뛰어요. 뛰고 싶은 거죠. 나갈래? 그러면 네! 줄 서서. 대신 안전규칙 지키지 않으면 못 논다. 그렇게 밖에서 뛰고 그런 시간들을 아이들 관찰 하면서 파악 하는 것 같아요. (센터장 F)

(연구자: 키움센터 왔을 때 제일 재미있는게 뭐예요?) 1시에 밖에 나가서 (아동 H: 피구, 피구해요). 신체활동이요. 피구 (아동 G)

저도 피구 좋았어요(아동 I)

놀이 중심 운영을 위해 실외놀이를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어떻게 실외놀이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먼저 바깥놀이 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자발성, 창의성 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놀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위의 센터장 D와 F의 이야기를 보면 실외 활동을 매일 하지만, 센터장 F는 한 시간씩, 센터장 D는 두 시간씩 한다고 하고 있다. 바깥놀이 시간은 한시간을 제한하기 보다 최소 두 시간, 나아가 그 이상 아동들이 충분히 놀았다고 느낄 때 자유롭게 놀이를 마칠 수 있도록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필요가 있다.

### 3. 지역사회수요기반의 원칙 실현 실태

#### 1) 개별 센터 단위의 지역사회연계 현황

우리동네키움센터와 학교와의 연계, 지역 내 돌봄기관과의 연계 활성화는 중앙정부 다함께돌봄사업에서도 서울시 온마을돌봄사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이자, 원칙이다. 그러나 지역마다 매우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학교와의 연계와의 연계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1) 학교와의 연계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와 학교와의 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센터장 E는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다며 인근 초등학교 중 한 곳은 홍보용리플렛 조차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하였다. 반면 센터장 D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신입생 OT때 키움센터 홍보 리플렛이 배포되었고, 문의전화가 많이 왔으며 홍보효과가 매우 좋았다고 하였다. 이용아동 모집 및 키움센터 홍보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를 통한 홍보이다.

저희는 처음에 공고를 보내고 홍보할 목적으로 리플렛을 보내드리고 했는데, 전혀 모르시고 전혀 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마다 또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정말 완강하게 우리 학교 이런거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공문도. 그래서 다 보냈어요 일단은. 근데 좀 주임선생님들은 부장선생님들?은 한번 쯤 보세요 해서 보내준 학교는 있어요. 그렇게 계속 접근 했는데 아직까지 한 학교는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센터장 E)

저희는 신입생 오티자료 배포하잖아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먼저, 돌봄전담사가 전화 와서 같이 홍보지 넣어도 되냐? 홍보할 자료가 있냐 해서. 따로 문서하나 만들고 리플렛 같이 넣어서 배포됐거든요. 그게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우리는 TO가 없어서 많이 미안했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센터장 D)

## (2) 지역 돌봄기관·돌봄전문가와와의 연계

###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센터장 A의 키움센터는 길 건너편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그 지역아동센터와 수시로 연락을 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학습지원이 필요한 고학년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로 연계하여 보내기도 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저녁 시간에 키움센터에서 돌보기도 한다고 하였다.

저희는 바로 문을 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걸어서 1분? 30초? 센터랑 수시로 지역사회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야기하고, 지아센은 청소년이 있어서 초등은 청소년 아이들이 멘토링을 하기 때문에 초등 아동은 6시 집으로 보내세요. 그 아이들이 6시에서 8시까지 혼자 있어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그 아이들을 시간당 비용을 받고, 시간당 500원이잖아요. 매뉴얼에 두 시간 천원, 간식제공 안 되고 한 달에 3만원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협의 중이에요. (센터장 A)

그러나 센터장 G처럼 인근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어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구는 인근에 지아센이 없어요. 굉장히 멀리 있고, 학교도 가깝지 않아요. 연계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사실 3km반경에 지아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돌봄 기관의 연계가 용이하지는 않았어요. (센터장 G)

최근에는 ○○동에도 키움센터가 생기고 ○○구 내에서 4개 센터가 개소했는데, ○○동 외에 다른 두 군데는 멀리 떨어진 상황이고, 키움센터 내에서 연계를 좀 많이하려고 연락하고 그런 상황이고. (연구자: 아직 그럼 4개 센터와 가시화된 교류는 없나요?) 어요. 센터가 개소하는 단계이고, 개소할 때 1호점이다보니 계속 와서 인사하고, 저희한테 사업 어떻게 하는지 듣고 가시는 추세이기는 하나 현재로써는 네트워크 회의라던가 이런 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고. (센터장 G)

#### ○ 학교사회복지사,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센터장 D는 아동보호기관에서 3년 생활 후 원가정 복귀된 아동이 있어, 학교사회복지사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회의를 했던 경험이 있다. 지역사회연계의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저희는 4학년 아동이 아동보호기관에 3년 정도 있다가 집으로 귀가한 상태예요. 그 아이가 특별한 아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랑 저랑 마포 보호담당기관 선생님이랑 셋이서 회의도 했어요. 그렇게 서로 연락하면서 애 상태가 어떤지 모니터링하고. (센터장 D)

#### ○ 어린이집과의 연계

센터장 E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학교를 통한 홍보 도움은 받지 못했으나, 키움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인사로 참여하면서 키움센터 홍보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지역 내 대표적인 돌봄기관으로 키움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돌봄기관이다. 지역 내 키움센터 센터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돌봄기관 간 연계를 도모하는 것 또한 지역사회연계의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저는 효과를 봤었던 게 일부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들어갔거든요. 바로 밑에 어린이집. 거기서 홍보를 해주셔서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자료를 다 들고 갔었어요. 각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그분들이 되게 유하세요. 공문 다 보내드렸더니 현관문 앞에 큰 포스터 하나씩 붙여주셔서 거기서 효과를 봤어요. 작년에 그 7살 친구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놀이하다가 이번해 온 친구도 3명정도 되고, 그런 식으로는 효과를 봤는데 초등학교는 도움을 못 받았어요. (센터장 E)

## 2) 센터장의 마을자원 발굴·연계 역량의 중요성

센터장 C와 F는 마을활동가 경험이 있다. 연구에 참여한 센터장 중에서 마을 자원 활용을 잘 하고 있으며, 크게 어려움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마을 자원이 많은데,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센터장 F는 ‘같은 자치구라도 센터마다 다르다고 하였다. 지역 내 활용할 수 있는 마을 자원이 많고, 지역 주민 간 교류가 활발한 지역 문화도 중요하지만, 센터장의 마을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량이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마을 자원 연계 활성화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역 특성이.. 마을활동 많이 하지 않아요? OO동은 공원 중심으로 재생사업, 마을사업단 이렇게 많아요. 저도 그 지역 마을 일도 했었고 관계, 네트워크가 형성되서. 그런게 유리했던 것 같아요. 마을 자원들도 많으세요.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있는데 모르면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가 미리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역자원은 자원봉사해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략) 같은 OO구라도 센터마다 다르기는 해요. (센터장 F)

센터장 C는 지역자원 발굴을 지금도 계속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아동 대상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센터 이용 부모들에게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모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 센터 이용아동들이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을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키움센터 옆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곳 프로그램에 센터 이용아동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유휴공간을 키움센터에서 이용하기도 한다. 부모·아동 동반 프로그램의 경우 키움센터 이용아동들이 신청하게 되면 센터장과 돌봄교사가 부모를 대신하여 다수의 아동들을 데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일을 하느라 평일 낮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수 없었던 맞벌이 가구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웠으나, 작년까지는 키움센터에 이용아동들이 없는 학기 중 오전, 주말에는 지역주민 대상 공간대여,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왔다. 지역축제 공연무대에도 키움센터 아동들이 매년 서왔다. 센터장 C가 이야기한 다양한 방법은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이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저희가 또 지역 자원 발굴 계속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역에서 무슨 도서관에서 A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그러면 저는 저희 단독이나 밴드에 홍보를 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면 부모님들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거예요. (중략) 사실 무슨 홍보를 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빠르셔가지고 선착순 1등이에요. 하면은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8명 9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중략) 그쪽에서는 이제 지역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고 그런 부분이 맞고, 저희가 또 옆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유효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요. 저희 센터 프로그램도 거기서 많이 활용을 하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지역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운영되는 시간이 거의 낮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맞벌이 부모님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부모님 대신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만이 아니라 5명 10명을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연계되고 있고 저희가 또 동네 배움 거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이 없는 오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기는 했는데 학기 중에 아이들이 없는 오전은 지역주민하고 같이 유효공간으로 많이 내어 드렸었어요. 그래서 주말 토요일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이번에는 토탈 공예 이런 것을 했었거든요. (센터장 C)

센터장 C의 키움센터는 키움센터 또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지역주민과의 공간 공유를 활발히 하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키움센터의 개방적 운영 특히, 공간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보육정책에서도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 지역주민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계속 논의되어 왔다. 지역사회의 중심의 돌봄 공동체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독일의 가족센터(family center)의 한 유형도 어린이집 기반의 가족센터인데, 이 역시 이용 영유아들이 없는 평일 저녁, 주말 등에는 지역주민에게 지역 공간으로서 어린이집을 개방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안전, 어린이집의 위생·청결의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어린이집을 개방하는 것은 쉽사리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염려를 했으나 지역사회의 상호간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키움센터의 공간 개방에 대해 이제는 염려되지 않는다'는 센터장 C의 이야기는 지역사회 내 상호간 소통, 협력, 연계를 처음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준다. 일단 시도를 하고, 그 시도 속에서 상호신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를 통해 지역사회 연계를 더욱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에 그 부분을(공간관리나 문제 발생 시 책임) 많이 (걱정)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지역에 있는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여기가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기관끼리 연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빌려달라고 하는 분은 없고 그렇게는 빌려주지는 않아요. 만약에 도시재생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동네 배움 센터나 성인프로그램인데 장소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저희 운영위원회 연계되어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그분들을 신뢰를 하고 알아서 잘 지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저희 센터만의 색깔인 것 같아요. 저희도 지역에 도울게 있으면 돕고 지역도 저희를 생각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센터장 C)

### 3) 지역 돌봄자원 연계를 위한 서울시 및 자치구 노력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활성화해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돌봄서비스, 돌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 센터장 C의 키움센터 사례처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는 운영비 절감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센터장 C의 키움센터는 지역 돌봄기관으로 운영될 때부터 현재까지 이용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 자부담 없이 운영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면, 어려웠다면 진작에 (이용료를) 받았을 거라고 하였다. 이는 아래 센터장 C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나듯이 자치구와 지역 자원들의 연계가 활발하여 프로그램 운영비가 거의 없이도 안정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구에서 지원받는 운영비는 식재료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용아동들과 조리를 해서 급·간식을 제공하는데 요리 역시 아동들이 매우 즐거워한다고 하였다.

저희가 자부담 없이 운영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려웠다면 진작에 받았을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받아야지요. (중략) 식자재를 구입하고 뭐 세금내고 하면 운영비가 많이 남지 않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들 연계가 많이 되어있어요. 어차피 마을에서 (돌봄기관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중략) 지역에서 재료까지 다 연계 돼서 강사 재료 다 연계해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있고 정말 사소한 가위 색종이 이런 정도만 있어도 (센터장 C)

키움센터가 확충되면 될수록 필요한 돌봄 자원 또한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것이며, 공간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요구도 늘어날 것이다. 늘어나는 돌봄 요구를 해소하는 방안에는 신규 서비스나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 내 돌봄 자원을 발굴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돌봄 자원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는 서울시와 자치구 단위에서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1) 지역돌봄협의회 운영

센터장 D가 속한 지역은 구 돌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돌봄협의회에 센터장 D가 참여를 하고 있고 지역 초등학교 교장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키움센터에 대한 홍보가 구 돌봄협의회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가 서대문구 돌봄협의회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부터, 거기 교장선생님도 오시고 다양하게 오셔서 거기서 키움센터 2,3,4호점 개소할 때도 오시고 교육계획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교장선생님 계셔가지고 2호점 개소하는데 교감이 직접 전화하셔서 잘해보자고 얘기하셨대요. 그 분이 역할을 해주셨나 싶기도 하고, 학교도 아쉽잖아요. 돌봄이, 그래서 그런지 2호점도 지금 엄청 문의전화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센터장 D)

센터장 H가 속한 지역은 현재 키움센터를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아카데미, 학교 돌봄선생님이 참여하는 모임이 작년 기준, 두 달에 한번 운영되었다. 이용아동을 상호간 연계받거나 실질적인 자원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학교 담임교사가 키움센터로 연락을 하고, 키움센터에서도 아동이 등원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오면 학교 담임교사가 연락을 오고 하는 점은 좋다고 하였다.

작년에 저희는 초반에는 성동 아이꿈하고 지아센, 청소년 아카데미, 학교 돌봄 선생님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두 달에 한 번, 저희는 구청 직영이라 구청에서 주관했었어요. 한 두 번인가 그런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회의하면서 인근에 있는 돌봄 선생님들 연락처 다 공유하고 아이들 거기서 좀 연계가 힘든 아이들은 우리한테 연계 좀 부탁드리고 그런 얘기는 계속

했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해서 (센터장 H)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온라인 수업 때문에 연락은 왔어요. 지금 누가 수업을 안 듣고 있다 지도해 줄 수 있나? 이런 식의 전화는 받아봤는데, 다른 서로 이용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연계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전화 하시고 우리 아이도 시간 돼서 안 오면 선생님한테 연락도 하고 아이부모에게도 연락하거든요. (센터장 H)

## (2)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마을돌봄조정관 배치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하여 센터장 FGI조사에서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와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권역 내 돌봄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수요에 따른 돌봄공급조정 및 마을자원을 발굴·지원하는 마을거점 돌봄기능의 중규모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말한다(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0: 105). 지역 내 돌봄자원 연계를 위해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센터장은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마을돌봄조정관은 센터운영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마을 내 돌봄자원 조정 및 연계, 초등학교 등 관련기관과 지역사회 돌봄 관련 협의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학교와 마을돌봄기관 간 현장매개자로서 돌봄연계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다(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0: 112). 말그대로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 내 돌봄자원 연계 기능을 주되게 수행하는 키움센터이다. 2020년 10월 31일 기준, 운영 중인 융합형 키움센터는 총 3개소이다. 그러나 융합형 키움센터가 향후 더욱 확충되고, 명시된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FGI조사에서는 융합형 키움센터의 역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센터장 B는 융합형의 마을돌봄조정관에 대해 기대된다고 하며, 다른 유관기관의 상위 기관의 아닌 융합형 키움센터에서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센터장 A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융합형 키움센터와 일반형 키움센터의 설치·운영 시기 차이로 인한 우려를 표하였다. 현재 일반형 키움센터가 먼저 확충되어 운영이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융합형 키움센터가 나중에 생기고 있는데, 이 경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일반형 키움센터와의 연계, 역할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센터장 A의 이야기처럼 융합형 키움센터가 먼저 만들어지고, 융합형 키움센터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며 일반형 키움센터를 확충해나가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더욱 적절할 수 있다.

융합형에서 조정관의 역할을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지역 유관기관들 돌봄에 원하는 것이, 융합의 키움센터장을 달고 있는데 조정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키움의 센터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다른 유관기관들 상위 기관이 아니잖아요. 조정관이라는 역할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센터장 B)

일반형을 많이 만들게 아니라 융합이 먼저 있어서 마을조정관이 자기 업무를 찾은 다음에 일반형을 만들어야지 일반형의 인력도 배치하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융합형의 역할을 하는데 일반형이 7개 8개 만들어 진 다음에 융합형이 만들어 저요. 융합형이 자기 업무를 하려면 6개월 이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일반형은 자기 자리를 잡느라 고군분투하고 있고.(센터장 A)

조정관들도 힘든 거죠. 상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 뭔가를 요청해서 협의체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선 저희가 알고 있는 조정관의 역할은 마을마다 단위마다 크게 있는 거잖아요. 마을 조정관은 거점도 마찬가지로지만 키움센터만을 위한 조정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든 돌봄의 시설들을 융합해서 학교랑도 다 연계를 해서 필요 아동이 오면 그 조정관이 필요한 시설을 확인해서 연계를 해 주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조정관인데 그런 업무를 하는 조정관이면 적어도 일반형보다는 먼저 생겨서 거기가 중심점이 되어서 구성을 해서 움직여 줘야지만 조금 더 나머지 시설들이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일반형이 생기고 거꾸로 조정관이 와서 조정관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나누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관이 어떤 기관의 상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관에 협조를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센터장 A)

융합형 키움센터를 지역별로 골고루 확충하고, 마을 권역 내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마을 권역 (돌봄) 전달체계 구축, 마을 돌봄서비스 제공 및 마을 돌봄자원 연계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내 돌봄자원 간 연계를 활성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4. 종사자 역량에 따른 센터 운영 차이 실태

앞의 아동최우선의 원칙과 지역사회수요기반의 원칙을 실현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종사자 간 키움센터의 운영원칙을 어떻게 실제 운영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센터장과 돌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이 조사결과에서 함께 드러났다.

### 1) 종사자 역량에 따른 운영 차이 해소를 위한 종사자 교육 강화 필요성

#### (1) 종사자의 역량, 경력에 따른 센터 운영의 차이

센터장 A는 운영원칙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매뉴얼 외에는 없다고 하였다. “매뉴얼을 보고 본인의 과거 경력들에 따라서 그 색깔대로 가는 거예요”라는 센터장 A의 이야기는 경력에 따라 센터장과 돌봄교사의 해석대로 운영원칙이 적용되고, 센터마다 그 운영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말이다.

원칙들 어떻게 알고 있냐? 물으셨잖아요. 매뉴얼 외에는 없어요. 시설장이 결과적으로 그 매뉴얼을 보고 본인의 과거 경력들에 따라서 그 색깔대로 가는 거예요. (센터장 A)

더불어 센터장 A는 교육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센터장 A는 2월에 개소를 하고 교육은 하반기에 들었다. 이 경우 교육을 듣기 전, 상반기에 “시설장들이 이미 본인 색에 맞춰서, 어린이집, 돌봄교사, 사회복지사 출신들 각각의 색깔대로 이미 셋팅하고 운영이 된다”며 교육을 듣고 틀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센터장 B 또한 센터장들의 과거 경력에 따라 운영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초반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동일하게 지적하였다. 이는 개원 전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해주는 말이지만, 센터장들의 과거 경력에 따라 운영 방향이 다르다는 이야기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2월에 개소했었어요. 교육은 하반기에 있었어요. 이미 상반기에 그들만의 틀이 잡힌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반기에 개소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줌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교육이 상반기에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시설장들이 이미 본인 색에 맞춰서 어린이집, 돌봄교사, 사회복지사 출신들 각각의 색깔대로 이미 셋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육을 들으면 그 교육이 이제 와서 뭔가를 바꾸기에는 어떤 센터든 이게 잘못 됐구나. 바뀌어야 하지만 어떤 센터는 그래 교육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센터는 저게 필요해 하면서 그대로 갈 수 있거든요. (센터장 A)

센터장이 가지고 있는 과거 경력이 어떠한에 따라서 방향이 너무 다르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사회복지사들은 연계, 보육 하셨던 분들은 돌봄,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초반에 갔으면(교육을 받았으면) 좋았겠다. (센터장 B)

앞의 지역사회연계 현황에서 센터장의 마을자원 발굴·연계 역량에 따라 키움센터와 지역 돌봄기관 및 자원 간 연계 간 차이가 난다는 점을 검토한 바 있다. 이 역시 종사자의 역량에 따라 센터의 운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센터장들의 발화를 통한 직접적인 언급뿐만 아니라 센터장 FGI조사 내용 전반을 통해서는 센터장들의 과거 경력에 따라 센터 운영 방식 특히, 키움센터의 운영원칙을 구현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가령, 일반 회사원 및 독서논술 지도 경험이 있는 센터장 H는 키움센터의 역할은 아동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거라고 인식하고 있다. 교육하고 지도하는 역할이 아동최우선의 원칙 자체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놀이와 쉽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동최우선의 원칙이 저희가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아동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거잖아요”라는 이야기이나, “선생님도 힘들어해요, 그 동안은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런 일들만 했는데 갑자기 놀이와 쉽고 아동최우선의 원칙을 아이를 돌봐줘라고 하면”이라는 이야기는 아동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에서 놀이와 쉽 중심의 운영은 어려운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동최우선의 원칙이 저희가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아동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최우선의 원칙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가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 선생님도 힘들어 해요. 그 동안은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런 일들만 했는데 갑자기 놀이와 쉽고 아동최우선의 원칙으로 아이를 돌봐줘라고 하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거

잡아요. 물론 주시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놀이를 할 때도 애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지만 활동하려고 하는데 어떤 애가 하기 싫다고 공놀이를 하고 있으면 그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애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아동최우선의 원칙은 아니잖아요. (센터장 H)

이와는 달리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육아 초등 방과후 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는 센터장 D나 보육교사, 우리동네보육반장 경력을 갖고 2016년부터 마을돌봄기관에서 활동가로 활동해온 경험이 있는 센터장 C는 상대적으로 아동 중심, 놀이와 쉼 중심 운영, 지역사회 연계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키움센터의 종사자의 역량, 경력에 따라 키움센터의 운영 현황이 차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키움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역량 강화가 중요함을 동시에 시사하는 것이다.

## (2) 종사자 교육의 효과 및 강화 필요성

아동최우선의 원칙에 대한 종사자 간 이해가 다양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FGI조사에서 드러났듯이 현재는 키움센터 종사자 간 키움센터 운영원칙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도 크고, 운영원칙 적용 역량 차이도 크다. 키움센터 종사자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적 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사자의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센터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운영도 가능할 수 있다.

교사가 그냥 나는 이게 전문성 있으니까 이렇게 할거야 라는게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아이와 관계 속에서 끌어내는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략) 그러려면 교사랑 아이가 정말 친밀해야 해요. 놀이를 많이 해야 하고, 많이 섞여 있어야 해요. 프로그램으로 애들한테 가르치듯이 접근하면 관계형성이 안 되고. (중략) 저는 키움이 좋았던 게 쉼과 놀이가 가장 중심이라서 좋았거든요. 여기서 활동을 만들어 내야해요. 그러려면 교사들이 열려있어야죠.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해요. (센터장 D)

센터장 F의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019년 12월 말에 개원한 곳이다. 작년 11월에



들었던 직무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키움센터 관련 교육을 듣게 된 경우인데, “공통교육을 들으면서, 우리 돌봄선생님은 들으니까 참 좋아요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다. 관련 교육을 처음 듣는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교육이 키움센터 종사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됨을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통교육을 들으면서, 우리 돌봄 선생님은 들으니까 참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략) 돌봄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감을 좀 못잡았었어요. 근데 교육을 들으면서 정리가 좀 됐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교육 듣고, 중간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긴 했지만, 직무교육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센터장 F)

아래 센터장 I의 이야기는 키움센터 현장 컨설팅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다. 센터장 I는 센터 설립 초기,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목적 하에 원어민 선생님을 채용하고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편성했었는데, 컨설팅 과정을 거치며 키움센터의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했다. 현장 컨설팅이 키움센터 종사자들의 운영원칙 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키움센터 운영을 바로 잡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저희도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아이들을 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동네의 특성을 알고 있니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시고.. 외국어는 요즘 추세에 따라서 매일 매일 넣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했어요. 거의 학원처럼 했죠. 근데 아이들 오기 전에 서울시에서도 오시고, 여가재단(서울시여성가족재단 온마을추진지원단)에서도 오시고 해서 프로그램 잘못됐다 하셨는데 지역 특성이 그래서 근데 하다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키움센터에서의 취지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시간표도 좀 바꾸고. (중략) 키움이 물론 틈새돌봄이긴 하지만 학원을 보내지 않는 엄마들에게는 그래도 학습적인 도움을 줘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랬고 (중략) 그랬는데 저는 컨설팅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분노했거든요. 동네 특성이 있는데,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자는데 왜 저지하시나? 생각했는데 키움이 틈새돌봄이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규칙과 질서를 배우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센터장 I)

## 2) 교육체계 개선 요구

### (1) 교육시기: 개원 전 교육 필요

센터장 A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오랜 경력을 갖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 중 비교적 놀이와 쉼 중심, 아동 중심 등 키움센터 운영원칙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센터장 A는 PBL이 무엇인지, 5C가 무엇인지, 서울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 신규 센터일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PBL, 서울시의 키움센터 운영원칙에 대한 센터장과 종사자의 인식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개원 전 키움센터 운영원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매뉴얼을 보고 PBL이라고 하는데 PBL은 무엇인가 책을 읽어도 ‘5C라고 하는데 또 5C는 뭐지?’ 서울시에서 말하고자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래 지아센과 색을 달리 하라는데 부모 의견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들이 신규센터일 경우 어려움이어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물어보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에 운영을 이렇게 해야지 훨씬 좋으세요. 라고... 키움의 색은 이거예요 라는 방향설정을 해주어야한다는 거죠. (센터장 A)

개원 전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개원 준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또한 문제이다. 센터장 A와 C는 개원 전에 물어볼 곳이 없었던 것을 어려움으로 제기하였다. 자치구에 이미 선 개원한 곳이 있고, 자치구 내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 간 연계가 활발하다면 선 개원한 센터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호점의 경우에는 그 도움조차 받기 어렵기 때문에 운영 준비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 창구가 필요할 수 있다.

신규교육이 중요한데, 신규센터는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요. 제가 개소를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갈 곳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중략) 저희 매뉴얼이라도 주시면 안 되겠냐 라고 했을 만큼 그렇게 그냥 무작정 와버리지 않는 이상은 뭔가 정보를 얻을 곳이 없어요. 인터넷 찾아봐서 전화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신규센터는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저희는 1호점이 있어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1호점으로 오픈하는 곳은 갈 곳이 없는 거죠.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센터장 A)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었어요. (센터장 B)

## (2) 교육 내용: 반복되는 교육, 기초교육으로는 적절하나 심화(전문)교육은 미흡

오랫동안 아동돌봄 영역에서 일을 해왔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련 교육을 듣고 있는 센터장 D는 들어야 하는 교육이 많은데 서로 다른 교육 간에 내용이 중복되며, 작년 교육이 올해 또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센터장 C 또한 “작년 교육을 올해 또 받는다”며 반복 교육의 문제를 동일하게 언급하였다.

교육이 요즘 워낙 많아서, 다함께 돌봄도 들어야 되잖아요, 키움도 들어야되고, 또 사회복지 보수교육도 듣고, 너무 중복이 돼서 (중략) 공통교육은 같이 듣고, 3시간. 그 내용은 딱히 사실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어쩔다고 말씀 드리기가, 아주 일반적인 내용...(중략) 저희는 작년에 한 번 짝 듣고, 올해 또 (듣고 있는데)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센터장 D)

저희가 집합교육도 받잖아요. 집합교육의 한계인 것 같아요. 작년교육을 올해 또 받는 거예요. 그게 기존 시설, 신규시설에도 책만 봐도 정보정도고, 교수님이나 강사분이 해도 시간이 짧다보니까 사실 교육을 받아도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소그룹으로 컨설팅형식의 교육이 잘 맞는거 같아요. (센터장 C)

경력이나 교육이수 현황을 고려하여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이 체계화된 단계가 아니다. 공통교육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아동돌봄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가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과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중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심화되고 특화된 교육보다는 기초수준의 평이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센터장 D가 아래와 같이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위의 “어쩔다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이야기는 교육 내용이 기초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센터장 D는 일반적인 교육(=기초교육)보다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아동발달, 아동상담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얘기 하겠지만 아동에 대한.. 저는 궁금한 게, 저희 센터 뿐 아니라 다른 센터 아이들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동 개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아동발달, 아동상담에 대한 부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들만의 문제인건지, (중략) 요즘 고민이 많거든요. (센터장 D)

### (3) 교육 형식: 집합교육 중심에서 소규모 컨설팅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

앞서 반복된 교육의 문제를 지적했던 센터장 C는 그 요인이 집합교육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집합교육이기 때문에 반복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센터장 C는 소그룹 컨설팅 방식의 교육이 적절하다는 제안도 함께 해주었다. 집합교육은 개별 센터의 상황, 교육 수강생의 이전 교육 경력 등을 고려하기 어렵다. 교육 내용에 차별화를 두고, 심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장 C의 제안과 같이 소규모 컨설팅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

현재 온마을추진지원단에서는 현장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PBL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센터장 B와 C모두 좋았다고 센터별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컨설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컨설팅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되어야할 것 같아요. 센터별로 특색도 너무 많고, 저희 얼마 전 PBL컨설팅 받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센터의 프로그램을 교수님이 직접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직접 바로 탁 집어 주니까 시간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 컨설팅! 감시 점검이 아니라 정말 도와주려는 컨설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센터장 C)

그런 컨설팅은 정말 다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도 신청해서 받았는데(센터장 B)

# IV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정책제언 기본 방향
2. 놀이 중심 운영 강화
3. 지역사회 연계 강화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V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

## 1. 정책제언 기본 방향

### ‘돌봄관계’가 있는 ‘소규모’ ‘마을’ 돌봄기관으로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정체성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양질의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체계 내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하고, 학교를 비롯한 지역 내 타 초등돌봄기관 간 역할 구분과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 초등돌봄기관과 구별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드러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고유한 특성은 돌봄관계가 있으며, 소규모이고, 마을(우리동네)에서 운영하는 마을 내 돌봄 기관이라는 점이다. 이에 “돌봄관계가 있는 소규모의 마을 돌봄 기관으로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내실화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앞의 정책현황 분석 및 면접조사 결과 드러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운영 중인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 분석을 통해 구조적으로 3/4정도가 소규모 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며<sup>2)</sup>, 이용아동이 저학년에 집중되어 있으나 고학년 아동이 있어 초등 전연령의 아동들이 함께 이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내용적으로는

2) 앞의 표 II-5를 보면, 2020년 10월 31일 기준 운영 중인 키움센터의 정원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76.8%가 정원 25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해당한다.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이자, 또래 및 다양한 연령의 친구들과의 관계, 돌봄제공자인 센터장과 돌봄교사, 돌봄을 받는 이용아동 간 돌봄관계가 살아있는 돌봄이자, 놀이와 쉽 중심의 돌봄이 제공된다는 특성을 보였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호작용 기회를 상실한 아동들에게 키움센터를 이용하며 맺는 다양한 대면 인적 관계는 더욱 의미 있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러한 키움센터의 구조적, 내용적 특성은 키움센터에 대해 이용아동과 양육자가 만족하는 주 요인이자, 키움센터의 역할·운영 방향에 대한 종사자의 기대와 요구가 반영된 것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키움센터의 돌봄관계가 있는, 소규모, 마을 돌봄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운영 내실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키움센터 고유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표방하는 키움센터 운영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III장 분석 결과, 아동최우선의 원칙과 지역사회수요기반의 원칙 구현에 여러 가지 한계가 발견되었다. 놀이와 쉽 중심보다 학습지원에 더욱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거나, 돌봄교사나 외부 강사 등 성인 주도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 또한 학교와의 연계, 지역 타 돌봄기관과의 연계 경험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돌봄관계가 있는 소규모, 마을 돌봄기관으로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원칙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동최우선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 주도, 놀이와 쉽 중심 운영을 전면화하여 강화하고, 이를 위한 홍보, 사회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수요기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시행하고, 지역사회 돌봄자원, 초등 돌봄기관 간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 2. 놀이 중심 운영 강화: 관계가 있는 돌봄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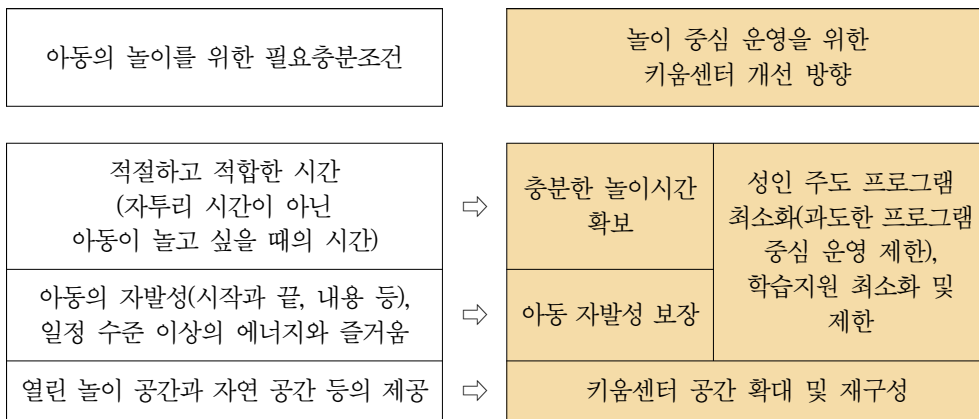
현재 제시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원칙을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 첫 번째는 놀이 중심의 운영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놀이는 아동의 자발성, 창의성, 즐거움 등에 기초하기 있기 때문에 놀이 중심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아동 주도, 아동 중심의 아동 창의성과 즐거움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키움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키움센터의 가장 좋은 점을 ‘놀이’와 ‘아동들의 의견 존중·반영’을 꼽았으며, 양육자들 또한 ‘놀이와 쉽 중심의 운영’, ‘아동주도 운영’ 원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이 양육자들이 키움센터의 운영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키움센터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은 키움센터 운영 방향 결정에 더욱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몇몇 양육자들은 키움센터 이용을 통해 놀이와 쉽 보장이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등, 자녀양육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였다. 학습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장들은 양육자들이 학습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려 학습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양육자들이 학습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양육자의 요구를 고려한다면, 특히 아동들의 요구를 고려한다면 키움센터의 놀이와 쉽 중심 운영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놀이와 여가 보장은 포스트코로나 시기의 초등돌봄 정책의 지향점이자 향후 강조되어야 할 키움센터의 역할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행연구 및 면접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코로나19와 함께 아동들이 빼앗긴 것은 학습권뿐만 아니다. 또래와의 대면 상호작용, 신체활동, 충분한 놀이와 쉽의 기회 결핍이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 시기, 안전하게 친구들을 만나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집 근처에 있다는 것은 아동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키움센터가 마을 돌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에 키움센터의 놀이 중심 운영 강화를 위해 앞 II장에서 살펴본 김명순 외(2017)에서 제시된 아동의 놀이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통해 현 키움센터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아동 놀이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성인(양육자, 종사자, 강사 등) 주도의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학습지원 또한 최소화 및 단계적으로 제한하여 충분한 놀이시간을 확보하고 아동 자발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열린 놀이공간과 자연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키움센터의 공간을 확대하고 재구성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아동의 놀이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김명순 외(2017)에서 가져옴

■ 그림 IV-1 ■ 놀이 중심 운영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선 방향

### 1) 충분한 놀이시간 확보

: 성인(양육자, 종사자)주도의 프로그램 최소화, 학습지원 최소화 및 제한

#### ○ 양육자, 종사자 주도의 프로그램 최소화(과도한 프로그램 중심 운영 제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아동에게 충분한 놀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들이 아닌 양육자가 요구하거나 돌봄교사 또는 외부 강사가 기획하여 진행되는 활동, 프로그램은 최소화한다.

FGI조사 결과, 학습이 아닌 문예체 활동으로 양육자와 종사자들은 키움센터의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요구하고 기획하지만, 아동들에게는 또 다른 학습이며, 아동 주도의 놀이 또한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대부분의 키움센터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시간을 정해놓고 프로그램 운영자, 강사를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활동의 시작과 맺음, 활동 내용의 결정 등에서 아동의 자율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양육자들이 요구에 의해, 센터장이나 돌봄교사들이 주도하여 기획하는 프로그램은 적어도 일반형 키움센터에서 만큼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움센터에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목표 중 하나였던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의 시각에서 아동기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활동 시간과 목적이 정해진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현 초등아동 특히 초등 저학년 아동들에게 사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그대로 공적돌봄체계로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 아동의 놀이와 여가 시간 부족이라는 기존 한국 초등교육·돌봄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양육자들의 요구에 의해, 센터장이나 돌봄교사, 프로그램 강사들이 주도하여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최소화한다. 센터장과 돌봄교사는 조력자, 활동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들이 주도하여 활동의 내용과 시작과 끝맺음을 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일반형, 융합형 키움센터의 문화예술체험활동 지원 시에도 아동 주도성, 자율성, 무목적성, 즐거움 등을 담지한 활동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차원에서 교과학습 지도는 학교 역할로 정리

： 키움센터의 온라인 수업 지원 역할→ 단계적으로 학교로 완전히 이전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키움센터의 놀이와 쉼 중심 운영을 어렵게 하고, 종사자의 소진을 불러오는 가장 큰 요인은 오전 시간의 온라인 교과 수업 지원이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온라인 개학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가 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의 온라인 수업 지원을 키움센터 등의 마을 돌봄기관이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키움센터는 방과후 돌봄기관이며, 온라인 개학 상황이라면 온라인 수업 지원은 학교에서 담당해야 한다. 지역사회 초등 돌봄체계가 구축되고 학교와

다양한 마을 돌봄기관과 자원 간 연계가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모습은 각 기관이 각자의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루어지는 역할분담과 상호 간 역할 공유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초유의 재난 위기 상황에서는 키움센터가 온라인 수업 지원을 담당할 수 있지만, 향후 또 다른 재난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는 온라인 개학 상황 시의 온라인 수업 지원은 학교의 역할임을 명확히 하고, 가정에서의 온라인 수업 지원이 어려운 아동은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는 온라인 수업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주 불가피하게 필요한 아동들에게만 최소한으로 온라인 수업 지원을 한다. 이는 개별 키움센터 차원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체계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돌봄, 학습 공백을 해소를 위해 키움센터에서 나홀로 아동의 온라인 수업을 최소한의 지원하되, 이 경우 키움센터에 대한 한시적인 추가 인력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키움센터 종사자 소진을 막고, 키움센터 센터장과 돌봄교사가 온라인 수업 지원으로 인하여 놀이와 쉼 중심의 운영을 내실 있게 못하는 상황 또한 막아야 한다.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습지원: 학습지원 필요 아동, 지역아동센터 연계 활성화**

이용아동들에게 충분한 놀이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는 학습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 학습능력 부진, 양육자의 적절한 학습 지원 미흡 또는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적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습지원을 할 수 있는 타 돌봄기관으로 연계한다. FGI조사 결과와 같이 학습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연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지역아동센터이다.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키움센터에서 집중적인 학습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로 연계하는 체계를 탄탄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역사회 내 각 돌봄기관이 서로 고유의 역할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역할분담과 포섭, 기능 분화와 공유, 통합 간에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서울시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간 기능 공유를 염두에 두고 융합형 키움센터 모형을 만들고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학교,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그 외 다양한 돌봄기관 간 역할분담과 공유,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놀이 중심 운영을 위한 키움센터 공간 확대 및 재구성

FGI조사에서 양육자들은 키움센터 공간이 좁다는 것을 개선할 사항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했으며, 센터장들 또한 정원 대비 협소한 공간을 운영 어려움으로 제기하기도 하였다. 놀이와 쉼 중심의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개방된 놀이공간이 필요하며, 쉼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공간이 현재보다 더 넓어야 하며, 공간 구성 또한 놀이와 쉼에 적합하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실외 놀이공간 또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놀이공간 확대

서울의 지역적 특성 상 비용을 최소화하며 초등학교 인근에 넓은 실내공간과 실외 놀이공간까지 갖춰진 곳을 발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놀이를 위한 키움센터의 실내외 공간 확대와 재구성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되, 이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놀이공간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현재 일반형 키움센터가 직면한 공간 부족의 문제는 거점형 키움센터가 지역별로 확충될 경우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규모 시설로 확충된 거점형 키움센터의 경우, 일반형과 융합형 키움센터에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 자원 등을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목적 중 하나이다. 거점형 키움센터를 지역별로 확충하여 공간이 부족한 일반형과 융합형 키움센터가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근 시설 및 자연공간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도 키움포털을

통해서 마을 내 돌봄자원 현황이 공유되고 있으며, 융합형 키움센터 또한 마을 자원 연계를 주 기능으로 확충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시설 및 공간 연계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되거나 체계화되어 있지는 못하다. 지역 내 유휴공간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동네키움센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내외 놀이 공간을 다양하게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 아동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키움센터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키움센터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공간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움직이는 놀이터 사업을 키움센터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 ○ 키움센터 면적 확대 및 놀이 중심 공간 구성

많은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현 설치 기준 바꾸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키움센터의 아동 1인당 면적기준을 확대하여 확충 초기부터 충분한 키움센터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확충 초기에 면적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며, 이는 오히려 추후에 개선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권장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아동 1인당 7㎡ 면적 기준을 권장 기준이 아닌 최소 기준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활동할 수 있는 좌식 공간 등의 휴식 공간, 책상과 의자, 교구장 등이 있는 공간이 아닌 개방된 순수놀이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변경하고, 놀이와 쉼 중심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공간이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 시 놀이공간 구성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시도해볼 수 있다.

### ○ 실외 놀이공간 확보

한국 아동의 놀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외 놀이시간이 특히 더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대상 조사 결과, 주 놀이공간을 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2.7%이며, 놀이터와 공원은 18.9%로 매우 낮았다(조숙인·권미경·이민경, 2017). 놀이시간 부족과 놀이 공간이 실내로 한정된 것 또한 한국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키움센터의 놀이 중심 운영을 위해서는 키움센터 이용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외 놀이공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실외 놀이공간을 함께 조성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 동일 건물 내에 실외 놀이공간 설치가 어렵다면 인근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실외 놀이공간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키움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실외 놀이터 설치 또는 인근 놀이터 활용 협약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실효성있게 시도할 수 있는 정책은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서 제안한, 서울시 움직이는 놀이터 사업 연계, 지역사회 차원에서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키움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등일 것이다. 키움센터 단독의 실외 놀이공간 조성이든, 지역사회 내 실외 놀이공간 활용이든 초등 아동에게 적절한 실외 놀이공간 확보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 3) 종사자, 양육자, 자치구 담당자의 놀이, 쉼 중요성 인식 제고

놀이와 쉼 중심의 운영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놀이가 무엇인지, 놀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종사자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예술 문화 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놀이는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봐야한다. 무강제성, 아동의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아동들이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놀이 중심이라고 이해하는 센터장들도 있다. 소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교과 프로그램이 아닌 형태의 활동을 하는 경우, 놀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하다. 자치구 담당자, 센터장과 돌봄교사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이해관계자들이 아동의 놀이권, 여가권에 대한 이해와 현장 적용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 놀이의 개념, 중요성에 대한 종사자 교육 과정 신설

현재 키움센터의 놀이, 활동과 관련해서는 PBL에 대한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 PBL은 교수법이기에 때문에 PBL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의 놀이, 여가의 중요성과 의미,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PBL교육과 연계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욱 좋은 것은 내용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보다, 놀이의 중요성을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놀이의 중요성을 PBL을 통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다. 놀이는 참여하는 아동, 놀이가 이루어지는 장소, 놀이가 이루어지는 시간 등에 따라 다양한 맥락에서 실현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센터, 이용아동의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 키움센터 현장컨설팅 체계 고도화 및 단계적 대상 확대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PBL 운영매뉴얼이 개발되고 PBL활동에 초점을 둔 컨설팅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키움센터 종사자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좋다. 앞선 조사 결과에서도 현장 컨설팅 특히, PBL활동 컨설팅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컨설팅 특성 상, 그 대상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화된 컨설팅 체계 구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컨설팅 시작 초기인 만큼 컨설팅은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 그 체계를 공고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컨설팅의 목적이 센터의 개별 상황과 해당 센터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화된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라면 1회성 컨설팅이 아닌 최소 3년~5년간의 지속적인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컨설팅 콘텐츠 마련, 컨설팅을 진행할 전문 인력 양성 등 컨설팅 기반을 우선적으로 다지고,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내후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PBL컨설팅 확대에 대한 현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형에 특화된, 소규모 특성을 고려한, 자치구 특성을 고려한 PBL 내용을 개발하여 현장의 키움센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PBL활동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PBL활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보급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한다. 놀이 전문가들은



놀이의 특성 상 우수사례 보급이 활자로 전달되기 어렵다고 하였다(김명순, 2019). 동영상으로 보급된다면, 실제 활동 사례를 직접보면서 돌봄교사의 역할, 이에 대한 아동의 반응, 놀이 및 PBL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키움센터 종사자들에게 더욱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특히, 직접 그 활동 과정을 보면서 키움센터 종사자들 또한 각자 나름의 해석을 하고 현장에 적용시켜보는 것에서도 책자 형태보다 동영상 형태의 운영 매뉴얼과 우수사례 보급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 아동 중심, 놀이와 쉽 중심 운영원칙에 대한 양육자 및 자치구 담당자 인식 제고

양육자 FGI 및 심층면접 조사 결과, 키움센터의 운영원칙이나 PBL활동에 대한 양육자들의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센터 이용에 만족하고 부모 모임에도 활발히 참여했던 양육자조차 운영원칙 및 PBL활동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아동 중심, 놀이와 쉽 중심의 운영원칙에 대한 양육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그 대상을 양육자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 담당자, 지역주민 전체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초기 상담시의 운영원칙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이용 전에 양육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운영원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운영원칙에 동의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기 상담시 양육자의 운영원칙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역량 강화 특히, 센터장의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설명하고 전달하는 역량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키움센터의 놀이와 쉽 중심의 운영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키움센터의 확충 자체나 시설 환경 중심의 홍보보다 키움센터의 운영 철학, 활동 내용, 아동들의 하루 일과를 중심으로 키움센터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아동기 놀이와 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내용에 포함한다.

양육자와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아동기 놀이의 의미,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별 키움센터에서 부모 대상의 교육을 기획하고 참석대상은 모집하되, 서울시에서는 놀이 전문가를 연계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지역별로 거점형 키움센터가 모두

마련된다면, 거점형 키움센터는 양육자 대상 교육을 진행할 것이며, 이때 자치구 담당자 및 지역주민 대상의 놀이 교육까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양육자 대상의 교육은 키움센터 이용자, 초등연령 아동을 양육하는 성인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차원에서 아이돌봄담당관과 보육담당관 간 연계하여 영유아 및 아동 자녀를 둔 부모 대상의 놀이 중요성에 대한 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시도해볼 수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 교육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시도해볼 수 있다.

### 3.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사회 초등 돌봄체계 구축 강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원칙 중, 지역사회수요기반의 원칙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돌봄자원 간 연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 돌봄자원 간 연계는 돌봄기관 간 역할 중복 해소 및 돌봄기관 간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도 기반이 된다. 지역사회 돌봄자원 간 연계 활성화는 돌봄수요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율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며, 돌봄공백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한 아동돌봄 공백 문제는 곧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자원 간 연계가 용이하지 않았음을 드러내주었다. 포스트코로나 시기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이유이다.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지역사회 돌봄 자원 간 연계 강화는 필요하다.

지역사회 연계는 다양한 돌봄 자원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프로그램, 공간 등 다양한 돌봄 자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신규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보다 지역사회 내 숨겨진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돌봄서비스와 자원을 확대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

#### 1) 지역사회 내 초등 돌봄기관의 중심적 역할 수행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의 다양한 돌봄 자원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해 키움센터가 지역사회 내 중심적인 초등돌봄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역 내 초등돌봄 공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는 놀이와 또래 관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며 더욱 의미 있는 돌봄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돌봄) 관계가 있는, 소규모 마을 돌봄기관의 기능을 내실 있게 수행하며 지역사회 내 초등돌봄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키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센터장들의 개별 노력에 의해서, 또는 자치구 담당자의 노력에 따라 키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키움센터 간 연계 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키움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상호 간 의견 교환을 하는 등 키움센터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2)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돌봄서비스 및 활동 다양화

### ○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자원연계 기능 내실화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돌봄서비스, 활동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자원연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센터장이 마을돌봄조정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자원 연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FGI조사에서 일부 센터장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향후 확충되는 키움센터에 대해서는 권역별(2~3개 동을 묶은 단위를 의미함)로 일반형 키움센터보다 융합형 키움센터를 먼저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융합형 키움센터를 일반형 키움센터보다 우선 설치하여 융합형 키움센터가 지역사회 돌봄체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일반형 키움센터의 입지 선정 및 개원, 개원초기 운영 지원을 융합형 키움센터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역 내에서 여러 키움센터의 총괄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에도 더욱 적절한 방안이다.

### ○ 센터장의 자원 발굴 및 연계 역량 강화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센터장의 자원 발굴 및 연계 역량이 키움센터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성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아래서 제안할 지역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구성이나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상위의 공식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개별 키움센터를 단위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센터장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지역사회 특성,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고 지역 내 다양한 자원 연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센터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단위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실효성 제고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2018)에 보면, 지역사회 돌봄 자원 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를 운영하고 모든 자치구에 「구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를 2019년 상반기 중 설치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FGI조사에서 드러나듯이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자치구들도 있으며, 구성된 자치구들 중에서도 일부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지역교육청, 초등학교, 마을 돌봄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가 지역 돌봄자원 간 연계·조정·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구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되더라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 김명순. 2019. “놀이에 대한 부정적 오해와 긍정적 편견: 미래사회 변화에서 ‘교육과정 놀이’에 대한 재개념화 방향과 과제”. 『한국유아교육학회 2019년 춘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김명순·김길숙·김지연·신혜영·정미림. 2017. 『아동놀이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보건복지부
- 조숙인·권미경·이민경. 2017.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박혜준·이재림·김영선·이보람. 2018. 『서울시 초등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서울대학교.
- 보건복지부. 2020. 『2020 다함께돌봄사업안내』
- 서울특별시. 2020. 『우리동네키움센터 세움 가이드라인 2020』
-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0. 『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매뉴얼』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19.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놀이 더하기로 행복을 키우는 초등교육 정책 제안”. 『초등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쟁점: 놀이를 더해 행복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 제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정재훈·정창호. 2018. 『교육·가족·사회적 관점에서의 독일 전일제학교 실내 분석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황옥경·한유미·김정화. 2014. 『한국 아동의 놀 권리 현주소와 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한국아동권리학회

### <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시설·설비기준령」, 2019.12.20. 인출.

## Abstract

# Study on Improvement and Sustainable Operations of Our Village, Kium Center

Kim, Song-Yi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Policy Researc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plan to build additional 400 childcare centers, named 'Our Village, Kium Center (hereinafter, Kium Center)', by the year 2022 to expand public childcare service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ium Center is previously called 'Da-ham-ke Dol-bom Center', public childcare center for elementary students located in Seoul run by Korea's central government that was later renamed by Seoul. Seoul has announced its plan to make the Kium Center a place for playing and learning based on play and relaxation and, for this, introduced the two operating principles of 'Best interests of child First' and 'Meet the Care needs of Community'. Supposed that the operating rules should be kept well to build childcare system of good quality for elementary students reflecting childcare needs of Seoul, the study has analyzed how faithfully these principles are followed.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 targeting 9 heads of the centers, 10 children who use the centers, and 9 parents or caregivers. According to the interview results, it shows that children and caregivers expressed high level of satisfaction at children-driven, play and relaxation centered operations, and solving childcare gap issue. Particularly, children are much highly satisfied in that they could play enough with other children in various age ranges. This leads to the point that it should strengthen characteristics of the

Kium Center as a 'small-scale community-based childcare center where both relationship building in similar age groups and play exist'.

Aiming at securing the identity of Our Village, Kium Center as a 'care-bonded, small-scale community-based childcare center', it proposes a policy for its play-centered operations with reinforcing connection with local community.

keyword: childcare service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Our Village, Kium Center', principle of best interests of child first, principle of meeting the care needs of community, children's right to rest, relax, play.



2020 정책연구-21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발행인    백미순  
연구자    김송이·유경아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인쇄처    (주)행복드림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대)  
ISBN    979-11-91139-32-7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www.seoulwomen.or.kr](http://www.seoulwomen.or.kr)  
신고자의 신분과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